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화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목 차



연구요약

연구요약	2
------------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6
2. 코로나19와 삶의 변화	17
3. 코로나19 시기 아동발달과 영향요인	20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26
2. 지표 체계	27
3. 연구 모형	28
4. 측정 도구	29

III

코로나19와 아동발달

1.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발달 추이 38
2. 코로나19 시기, 아동발달 관련 요인 41

IV

아동 연령별, 코로나19와 아동발달

1.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발달 추이 53
2. 코로나19 시기, 아동 연령에 따른 아동발달 관련 요인 56

V

결론 및 제언

1. 아동발달 추이와 관련 요인 탐색 76
2. 제언 82

참고문헌

- 참고문헌 90
- 부록 96



표 목 차

〈표 1〉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개요	3
〈표 2〉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개요	26
〈표 3〉 아동용 지표 구성	27
〈표 4〉 부모용 지표 구성	28
〈표 5〉 연구 모형	29
〈표 6〉 종속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30
〈표 7〉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32
〈표 8〉 통제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33
〈표 9〉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9
〈표 10〉 코로나19와 아동발달 추이	40
〈표 11〉 아동의 신체발달 변화 관련 요인	42
〈표 12〉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	43
〈표 13〉 아동의 인지발달 변화 관련 요인	44
〈표 14〉 아동의 감정발달 변화 관련 요인	45
〈표 15〉 아동의 행복 관련 요인	46
〈표 16〉 아동의 불안 관련 요인	47
〈표 17〉 아동의 행동발달 변화 관련 요인	48
〈표 18〉 아동 연령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3
〈표 19〉 아동 연령에 따른 코로나19와 아동발달 추이	55
〈표 20〉 아동 연령에 따른 신체발달의 변화 관련 요인	57
〈표 21〉 아동 연령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	59
〈표 22〉 아동 연령에 따른 인지발달의 변화 관련 요인	61
〈표 23〉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10~17세)의 공부의 어려움 관련 요인	62
〈표 24〉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10~17세)의 온라인수업 만족도 관련 요인	63
〈표 25〉 아동 연령에 따른 감정발달의 변화 관련 요인	65
〈표 26〉 아동 연령에 따른 행복 관련 요인	66
〈표 27〉 아동 연령에 따른 불안 관련 요인	68
〈표 28〉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10~17세)의 코로나 블루 관련 요인	69
〈표 29〉 아동 연령에 따른 행동발달의 변화 관련 요인	70
〈표 30〉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10~17세)의 부모님과의 관계 관련 요인	71
〈표 31〉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10~17세)의 친구와의 관계 관련 요인	72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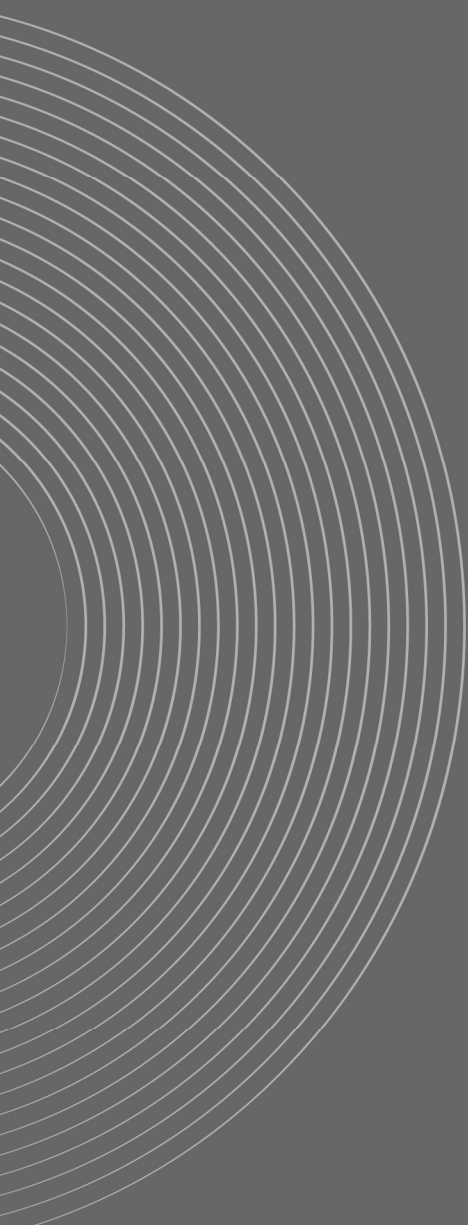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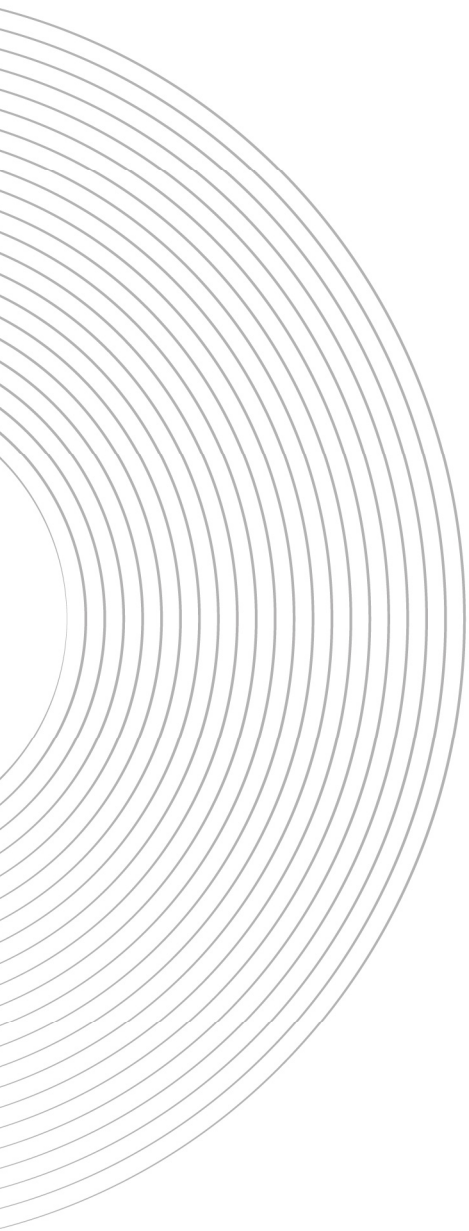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요약

I. 서론

- 2022년 현재,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경험했던 사회적 변화와 혼란은 다소 잦아들었으나 코로나19의 유행이 3년 이상 지속됨으로 인한 한국사회 저변의 혼란은 아직 진행 중이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감염의 우려도 여전히 잠재되어 있음
-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없으며 장기적인 공존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 전체 인구대비 비율만 보면 아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의학적 취약계층은 아니나 발달단계상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연령대로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부정적 발달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재난 취약계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발달 추이를 확인하고, 코로나19와 함께 등장한 주요한 환경의 변화와 아동의 신체·인지·정서·사회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재난 발생 시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환경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함

II. 조사 설계

■ 조사 개요

표 1.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개요

구분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2021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조사 대상	만 4세~고등학교 3학년 아동 및 보호자 (*만 4세~9세 아동 설문은 보호자 대리 응답)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0년 6월 19일~25일(7일간)	2021년 4월 1일~5월 3일(33일간) (※ 2020년 동일패널 수집으로 조사 수행 기간 증가)
조사 규모	아동 3,308명 / 보호자 3,308명	아동 3,927명 / 보호자 3,927명
분석대상	아동 1,367명 / 보호자 1,367명 (2020년, 2021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	

■ 지표 체계

- 아동용 지표체계: 코로나19 이후 식습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심리정서, 가정환경, 온라인 학습(초등 이상), 여가시간, 안전인식, 폭력 경험
- 부모용 지표체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 온라인 개학 및 사교육, 심리정서, 아동 증상, 돌봄 및 양육스트레스, 심리정서

Ⅲ.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발달 추이

1)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아동 요인

- 아동 성별: 남자(50.5%) > 여자(49.5%)
- 아동 학년: 초등 저학년생(29.7%) > 미취학 아동(29.2%) > 초등 고학년생(16.8%) > 중학생(15.1%) > 고등학생(9.1%)

● 보호자 요인

- 보호자 성별: 남자(53.8%) > 여자(46.2%)
- 보호자 연령: 만40~49세(60.4%) > 만30세~39세(36.1%) > 만50세~59세(3.5%)

● 가정 요인¹⁾

- 가구형태: 양부모가정(94.1%) > 한부모·조손가정 등(5.8%)
- 월평균 소득(코로나19 이후): 400~600만 원 미만(35.6%) > 200~400만 원 미만(31.7%) > 600~800만 원 미만(18.4%) > 800만 원 이상(9.0%) > 200만 원 미만(5.2%)
- 소득 변동성: 코로나19 전과 동일(64.6%) > 코로나19 전보다 감소(33.4%) > 코로나19 전보다 증가(2.0%)
-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정도: 늘 성인보호자와 함께(61.8%) > 아동 혼자 일주일에 1일 이상(38.2%)

1) 설문응답자 1,367명의 2020년 가정환경

2) 코로나19와 아동발달 추이

■ 아동 전체²⁾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신체발달 추이

- 신체발달의 변화: 불면·식욕저하·두통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반응이 증가함
(2020년 1.18 → 2021년 1.25, $p < .01$)
-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아동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감소함
(2020년 5.14 → 2021년 4.82, $p < .001$)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인지발달 추이

- 인지발달의 변화: 집중력·판단력 저하 등 부정적인 인지반응이 증가함
(2020년 1.16 → 2021년 1.30, $p < .001$)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심리발달 추이

- 감정발달의 변화: 불안·우울·무력감 등 부정적인 감정반응이 증가함
(2020년 1.28 → 2021년 1.39, $p < .001$)
- 행복 : 아동의 행복이 증가함(2020년 6.14 → 2021년 6.18)
- 불안: 아동의 불안이 증가함(2020년 4.35 → 2021년 4.38)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사회발달 추이

- 행동발달의 변화: 과한 의심·경계심·대인관계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반응이 유지됨(2020년 1.11 → 2021년 1.11)

2) 신체발달의 변화, 인지발달의 변화, 감정발달의 변화, 행동발달의 변화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보호자가 인지한 아동의 발달반응을 의미함

- 신체발달의 변화 : 불면·식욕저하·두통 등
- 인지발달의 변화 : 집중력 저하·판단력 저하 등
- 감정발달의 변화 : 불안·우울·무력감 등
- 행동발달의 변화 : 과한 의심·경계심·대인관계회피 등

■ 아동 연령별³⁾

● 코로나19와 아동의 신체발달 추이

- 신체발달의 변화

- 만4~9세: 불면·식욕저하·두통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발달이 증가함

(2020년 1.17 → 2021년 1.23, $p < .05$)

- 만10~17세: 불면·식욕저하·두통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발달이 증가함

(2020년 1.19 → 2021년 1.26)

-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 만4~9세: 아동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감소함

(2020년 5.29 → 2021년 4.97, $p < .001$)

- 만10~17세: 아동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감소함

(2020년 4.91 → 2021년 4.60, $p < .001$)

● 코로나19와 아동의 인지발달 추이

- 인지발달의 변화

- 만4~9세: 집중력·판단력 저하 등 부정적인 인지반응이 증가함

(2020년 1.18 → 2021년 1.27, $p < .01$)

- 만10~17세: 집중력·판단력 저하 등 부정적인 인지반응이 증가함

(2020년 1.13 → 2021년 1.34, $p < .001$)

- 공부의 어려움

- 만10~17세: 공부의 어려움은 감소함(2020년 6.25 → 2021년 6.02, $p < .05$)

3) 코로나19 발생 초인 2020년을 기준으로 아동의 연령을 구분함. 만4~9세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며, 만10~17세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을 의미함. 아동의 인지발달 중 '온라인 수업만족도'와 심리발달 중 '코로나 블루'는 2021년에만 조사된 항목으로 발달추이 분석(대응표본 t검정)에서는 제외하고 영향요인 탐색(회귀분석)에만 활용함

● 코로나19와 아동의 심리발달 추이

- 감정발달의 변화

- 만4~9세: 불안·우울·무력감 등 부정적인 감정반응이 증가함
(2020년 1.29 → 2021년 1.37, $p < .01$)
- 만10~17세: 불안·우울·무력감 등 부정적인 감정반응이 증가함
(2020년 1.27 → 2021년 1.43, $p < .001$)

- 행복

- 만4~9세: 아동의 행복이 증가함(2020년 6.14 → 2021년 6.29, $p < .05$)
- 만10~17세: 아동의 행복이 감소함(2020년 6.14 → 2021년 6.02)

- 불안

- 만4~9세: 아동의 불안이 감소함(2020년 4.29 → 2021년 4.12, $p < .05$)
- 만10~17세: 아동의 불안이 증가함(2020년 4.45 → 2021년 4.76, $p < .01$)

● 코로나19와 아동의 사회발달 추이

- 행동발달의 변화

- 만4~9세: 과한 의심·경계심·대인관계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반응 정도가 감소함(2020년 1.15 → 2021년 1.12)
- 만10~17세: 과한 의심·경계심·대인관계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반응 정도가 증가함(2020년 1.05 → 2021년 1.10)

-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만10~17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증가함(2020년 6.72 → 2021년 6.96, $p < .01$)

-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

- 만10~17세: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가 증가함(2020년 5.84 → 2021년 6.62, $p < .001$)

IV. 코로나19 시기, 아동발달 관련 요인

■ 아동 전체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신체발달 관련 요인

- 신체발달의 변화 영향요인: 아동요인(식습관과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보호자의 불안, 양육스트레스)
-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영향요인: 아동요인(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온라인 교육 환경)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인지발달 관련 요인

- 인지발달의 변화 영향요인: 아동요인(식습관),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보호자의 불안, 양육스트레스)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심리발달 관련 요인

- 감정발달의 변화 영향요인: 아동요인(식습관), 부모·가족요인(보호자 가정에서의 어려움, 보호자의 불안, 양육스트레스)
- 행복: 아동요인(식습관, 수면시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불안, 온라인 교육 환경)
- 불안: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불안)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사회발달 관련 요인

- 행동발달의 변화 영향요인: 아동요인(식습관), 부모·가족요인(보호자 가정에서의 어려움, 보호자의 불안, 양육스트레스)

■ 아동 연령별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신체발달 관련 요인

- 신체발달의 변화
 - 만4~9세: 아동요인(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부모·가족요인(가정에서의 어려움, 양육스트레스)
 - 만10~17세: 아동요인(사이버폭력 경험, 일상생활 어려움)
-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 만4~9세: 부모·가족요인(가정에서의 어려움, 양육스트레스)
 - 만10~17세: 아동요인(사이버폭력 경험), 부모·가족요인(온라인 교육 환경)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인지발달 관련 요인

- 인지발달의 변화 영향요인
 - 만4~9세: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보호자의 불안, 양육스트레스)
 - 만10~17세: 아동요인(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불안, 양육스트레스,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
- 공부의 어려움
 - 만10~17세: 아동요인(식습관),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불안, 양육스트레스)
- 온라인 수업만족도
 - 만10~17세: 아동요인(안전인식), 부모·가족요인(온라인 교육 환경)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심리발달 관련 요인

- 감정발달의 변화 영향요인
 - 만4~9세: 아동요인(식습관),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양육스트레스)
 - 만10~17세: 아동요인(식습관, 수면시간, 일상생활 어려움), 부모·가족요인(보호자 불안, 양육스트레스, 온라인 교육 환경)

- 행복
 - 만4~9세: 아동요인(식습관, 수면시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온라인 교육 환경)
 - 만10~17세: 아동요인(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불안)
- 불안
 - 만4~9세: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불안)
 - 만10~17세: 아동요인(일상생활 어려움),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불안)
- 코로나 블루
 - 만10~17세: 아동요인(일상생활 어려움),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불안, 양육스트레스)

● 코로나19시기, 아동의 사회발달 관련 요인

- 행동발달의 변화 영향요인
 - 만4~9세: 아동요인(식습관,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보호자의 불안)
 - 만10~17세: 아동요인(일상생활 어려움)
-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만10~17세: 아동요인(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가정폭력 경험)
-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
 - 만10~17세: 아동요인(일상생활 어려움), 부모·가족요인(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V. 결론 및 제언

- 재난 발생 시 부정적 아동발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 아동은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부정적인 발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에 대한 우선 개입이 필요하며, 재난반응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재난 발생 시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이 심화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완화하는 요인은 규칙적이고 영양 잡힌 식습관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 및 불안·양육스트레스가 낮은 환경임
 - 재난상황일수록 식생활을 비롯해서 일상의 루틴이 유지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호자의 돌봄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가정에서 경제적 혹은 돌봄 관련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아동에게 균형 있는 식단이 제공되고 필요한 돌봄이 제공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안이 마련이 필요함
 - 식습관 외에도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 불안, 양육스트레스 증가가 아동의 부정적 발달 변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가능한 안정적인 일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호자 대상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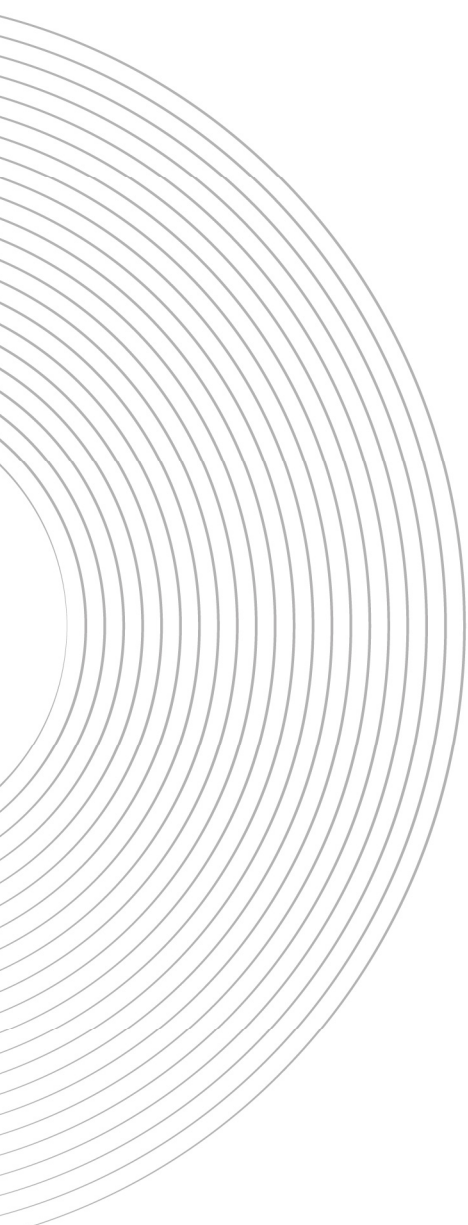
- 아동의 미디어 환경과 활용에 대한 기준마련 및 지원 필요
 - 게임시간의 증가는 아동의 행복을 낮추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되도록 하며, 가정 내 온라인 수업 환경은 행복을 높이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미취학·초등아동의 경우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진정하기 위한 대체물로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일에 주의해야 함을 교육하고, 중고등학생은 온라인 게임 과몰입 및 중독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알리고 스마트폰 게임 외에도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면서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이 아동의 긍정발달 관련 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하였음.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재정과 수업 환경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강화

- 보호자의 불안은 아동의 행복 감소, 불안 증가, 공부문제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보호자의 걱정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 증가는 아동의 불안과 같은 발달문제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문제 발생 시, 보건소, 주민센터와 같은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확보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 및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전화, SNS 등을 이용한 다양한 상담 채널을 확보하고 낙인감과 기록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널을 개발 및 확대함으로써 상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아동이 부모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불안, 걱정 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아동 각각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전달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연령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 재난 상황에서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만 4~9세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3학년생 아동은 '부모가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동발달의 주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따라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우선 강화되어야 할 것임.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비대면 자조모임 활성화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청소년기인 만 10~17세의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아동 자신이 지각하는 어려움 정도가 아동발달의 주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따라서 '친구와 가족 등 대인관계, 외모, 경제적 문제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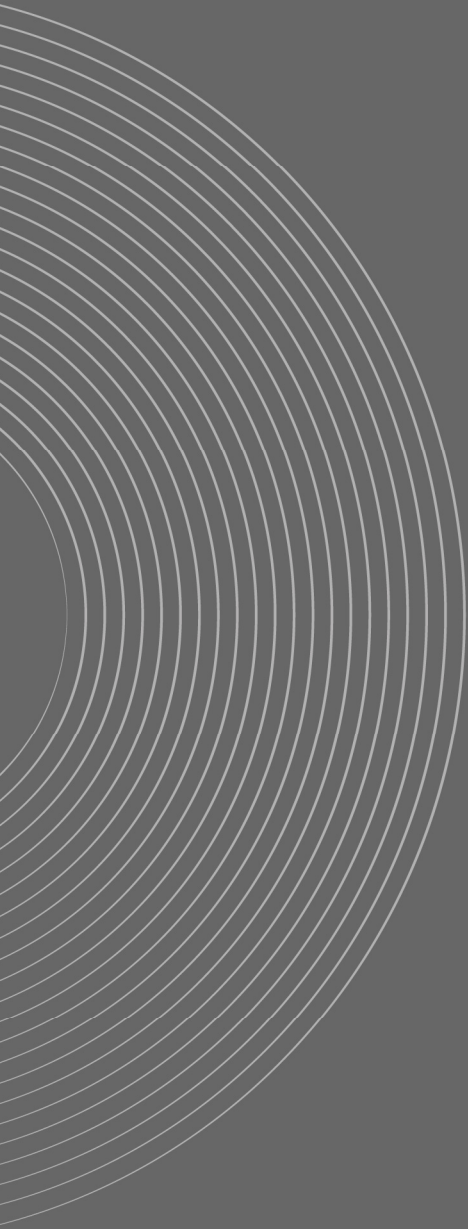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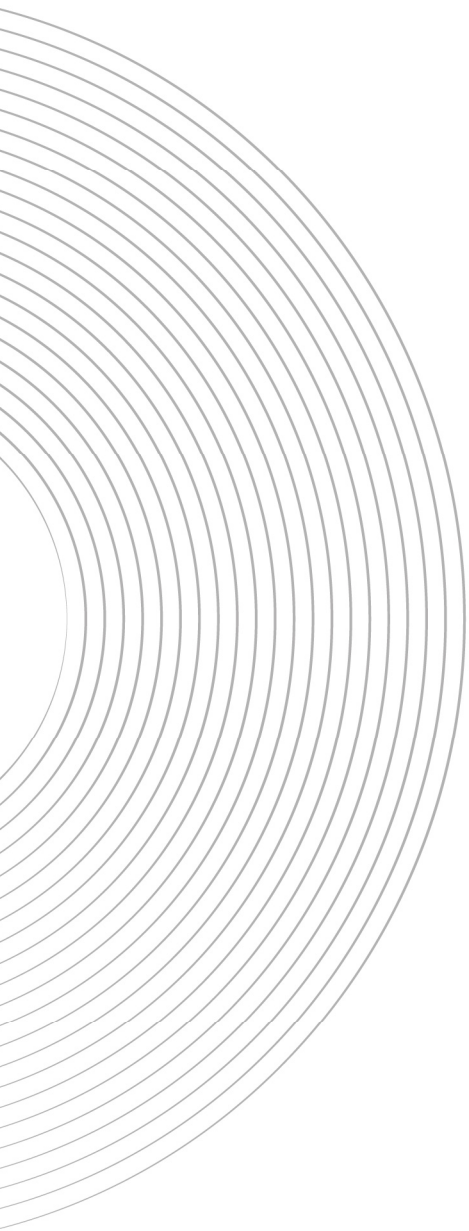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I.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가 급증하였고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착용, 방역패스, 예방접종과 같은 방역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계속된 변이로 재확산과 소강상태가 반복되어 왔으며 우리는 여전히 감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2021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고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발표하였다. 이후, 예방접종완료율과 유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업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보다 완화된 방역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10.29.). 2022년 현재,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경험했던 사회적 변화와 혼란은 다소 잦아들었으나, 재난상황으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 활동 제약과 정서적 어려움, 계층 간 격차와 갈등 심화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사회 저변에서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없으며 장기적인 공존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 연령대가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아동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 외에도 부모의 경제상황, 학교상황 등으로부터 간접적인 여파를 받으며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이세원, 2021). 지속되는 비대면 환경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사회·정서적 상호작용 감소는 향후 아동의 생애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최윤경, 2020).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 6월 17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8만 2천명이며 그 중 19세 이하 확진자는 약 4만 5천여 명으로 25.1%가 해당한다. 연령별로는 0-9세 확진자는 12.0%, 10-19세 확진자는 13.1%이다(질병관리청포털, 2022.6.17. 일자 추출). 다행히 의학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 확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약한 증상과 임상징후를 보이며 사망과 같은 치명률도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최수한 외, 2020; Sankar, J.

et al., 2020). 전체 인구대비 확진율과 치명률만 보면 아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의학적 취약계층은 아니다(김효진 외, 2021). 그러나 아동은 독립적인 사회경제활동이 어렵고(홍관표, 2021), 신체적·정신적·교육적인 면에서 환경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재난 발생 시 권리가 위협받고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발달에 놓일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이하나 외, 2021) 재난 취약계층으로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기 발생 시 그 파급효과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약자에게 더 가중된 영향을 미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영향 역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아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홍관표, 2021). 특히 아동은,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발달단계에 적합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코로나19 이슈의 중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한다(김효진 외, 2021).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탐색하고 재난 발생 시 건강한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아동발달 추이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아동과 가족이 경험한 주요한 삶의 변화가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2

코로나19와 삶의 변화⁴⁾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는 크게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안전의 위협, 온라인 학습 도입과 학업수행능력 저하, 재난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최혜정, 김형관, 2021; 이봉주 외, 2020; 이봉주 외, 2021).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을 낮추기 위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으며, 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돌봄을 제공하던 공적 돌봄 체계가 한시적으로 휴원 조치되었다. 상대적으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이 증가하였고 이는 양육스트레스 및 불안과 같은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이봉주 외, 2020). 정부는 가정의 부담을 줄

4) 굿네이버스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삶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과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I」 보고서를 발행하였음. 본 연구의 '2. 코로나19와 삶의 변화' 부분은 굿네이버스에서 발행한 두 권의 보고서에 기술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아동과 보호자의 삶의 변화와 어려움, 아동과 보호자의 신체·정신 건강, 아동 4대 권리 보호를 위한 당사자 정책 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이기 위해 영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돌봄쿠폰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대면서비스에 대한 감염 우려와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하였다(김영란, 2020). 결과적으로 평일에 자녀 홀로 혹은 자녀들끼리만 있었던 날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로,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봉주 외, 2020).

아동이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규칙적인 생활 루틴이 줄어들면서 규칙적인 식사습관과 신선한 채소, 육류, 고기의 섭취 비율은 감소한 반면 인스턴트 섭취와 결식 비율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부정적인 식습관의 변화도 관찰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수면시간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0.7시간 상승하는 등 양적으로 다소 긍정적 변화도 나타났으나, 불규칙한 수면습관과 같은 질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아동의 스마트폰, 인터넷 등 미디어 활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폭력 노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욕설이나 폭언, 악플을 받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드는 경험, 음란물을 본 경험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식습관, 수면습관, 미디어 활용과 같은 일상생활 변화로 보호자와의 갈등이 증가하였고, 이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과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상황은 은밀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원인으로 고려된다. 양육스트레스와 코로나 블루와 같은 보호자의 심리적 어려움이 체벌, 가정폭력 목적, 정서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가정 내 폭력 경험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온라인 학습 도입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가 높아졌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감염우려로 학교 수업이 기존의 대면학습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으로 변경되었는데, 재난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교육당국은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병행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했지만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발생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었다. 아동들은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진도와 학업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증가하였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돌봄 공백 여부에 따라 가정 내 수업 환경 준비정도가 달랐는데, 이는 수업만족도와 수업준비정도, 수업 환경 등에 영향을 미쳐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격차 심화가 우려 되었고,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안전의 위협, 학업능력 저하, 학업 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도 심화되었다(최혜정, 김형관, 2021). 청소년기는 행동범위가 확장하는 시기로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같은 지역사회 내의 자원과의 긍정적 경험이 발달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임혜림, 김서현, 2017) 장기간으로 생활 전반에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아동의 행동반경과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었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아동의 심리정서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최혜정, 김형관, 2021). 지난 2년간 굿네이버스 연구결과, 아동의 행복 정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였고 반대로 불안/걱정, 우울,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증가하였다. 특히 고등학생 아동에서 자살생각 비율과 증가율이 높았다. 이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연령으로,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등 복합적인 요인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코로나19 시기에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마음이 힘들 때 부모/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보기, SNS 활동하기 등을 통해 주로 해소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스트레스,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포함하여 집, 지역사회 등에서의 안전인식도 점차 감소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의 혼란과 양육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정서문제가 증가하였는데, 아동이 부모와 가정 내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이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환경변화로 아동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발달 변화 실태와 함께 관련된 영향요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이 지속되면서 감염병 확산 억제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아동 대상 돌봄·교육 정책 실행에 있어서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탐색하고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환경변화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신체·정서·인지·사회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데도 제한이 있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재확산 및 감염 폭증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 이후 환경 변화와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환경 변화 이슈 중 아동의 일상생활 변화(식습관, 수면시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와 폭력경험(가정폭력, 사이버폭력),

공부·친구·가족으로부터의 아동의 어려움, 아동의 안전인식, 보호자의 심리정서 어려움(불안, 양육스트레스), 가정 내 돌봄 상황(돌봄 공백, 가정 내 온라인 수업 환경,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과 같은 사안들이 아동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아동발달 저해요인은 최소화하고 긍정요인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3

코로나19 시기 아동발달과 영향요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⁵⁾에 의하면 어린이를 장애인, 노인과 함께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한다(제3조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대상을 의미하는데(재난안전법 제3조9의3), 아동은 외부적 환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고(오금호, 2013 외) 신체적, 인지적 대처 역량이 일반 성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서울신문, 2021. 04. 14.).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은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한 돌봄·교육 환경 변화와 일상생활의 변화가 아동의 신체활동 저하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졌고, 인지·사회·정서와 같은 아동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어 왔다. 아직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회적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추측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부터 청소년까지의 연령을 ‘코로나19 시기의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코로나19 이후 2년간의 아동 발달추이와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⁶⁾

아동기는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이다. 발달론적 관점에서 발달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의 신체·인지·심리·사

5) 법률 제18684호. 2022.1.4.개정. 2022.4.5.시행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684호)」에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어린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연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도(충청북도조례 제4560호), 경기도(경기도조례 제6792호) 등 각 지자체에 위임되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는 어린이의 연령을 만13세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대상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아동·청소년 관련법은 각 법령에 따라 아동의 연령대와 명칭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에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7285호)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영유아보육법에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령에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안전과 보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아동 전 연령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만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미취학부터 청소년기까지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발달실태와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회적 차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최경숙, 2000;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에서 재인용). 다만 재난 상황은 아동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재난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지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아동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위험이 크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직접적으로 재난에 의해 아동이 다치거나 스트레스 및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포함하여, 방역조치로 인한 개인생활의 자유와 사회적 활동 제한, 경제적 손실, 의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 차단, 음식공급을 어렵게 하거나, 방임과 학대, 교육 저하와 같은 다양한 간접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발달에 해를 입힐 수 있다(최지욱, 2021; Kousky, 2016).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의 발달 실태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발달 부분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의 임상증상은 성인보다 가벼웠다. 무증상인 경우도 있었으며, 발열,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코막힘, 콧물, 기침, 가래와 같은 상기도 감염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설사 등 위장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대부분 1-2주 내에 회복되어 코로나19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건강의 위험은 저조하였으며 사망과 같은 치명적 사례도 낮았다(최수한 외 2020, Jiao et al., 2020).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아동발달 간의 관련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확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아동은 생애 주기에 있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낮더라도 돌봄·교육적 측면 등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해 신체·인지·심리·사회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국내외 연구들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교육기관의 휴교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the social distancing)으로 아동의 식습관과 신체활동에 변화가 있었고, 각 가정에서 고칼로리 가공식품을 비축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비만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체중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undle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가구 경제상황 약화와 보호자에게 부가되는 돌봄 부담과 돌봄 공백, 일상생활 변화와 건강서비스 이용제한 등은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김선숙, 김진숙, 2020;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이봉주 외 2020; 이봉주 외 2021). 2020년 2월, 중국의 3-18세 아동에서 끈기, 산만함, 짜증과 같은 심리·행동 문제가 보고되었으며(Jiao et al., 2020),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은 아동은 심리정서 발달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과 공격성,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 영향

을 보였다(최혜정, 김형관, 2021). 또한 정익중 외(2022)가 코로나19 이후 정상등교가 어려워진 아동의 달라진 일상생활 수준과 가구의 빈곤 여부에 따른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아동의 일상이 아동균형생활시간 권장기준⁷⁾에 부합할수록 행복감이 높았고 반대로 가구의 빈곤 상황은 행복감을 낮추는 저해요인이 되었다. 비빈곤 가구이면서 코로나19 이후 일상균형이 좋은 아동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는데, 빈곤가정 아동의 경우 일상생활 균형을 갖추어도 빈곤 가정 아동의 행복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층에 경제적 결핍을 채워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발달, 정서발달 외에도 재난으로 인한 인지발달에 변화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학습이 주요한 교육방법이 되면서 아동들의 수준별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되었으며 가정 내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혜정, 김형관, 2021). 2020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의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약 58%가 온라인 수업 도입으로 자신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으나 교사의 약 79%는 원격교육 진행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계보경 외, 2020). 이는 온라인 수업 도입으로 아동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과정을 이끌어가는 역량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혜정·김형관(2021)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은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진로성숙도가 낮아 코로나19 스트레스라는 정서적 요인이 아동의 학업발달에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환경은 아동의 사회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결핍 및 그로 인한 소외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또한 초·중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사회정서역량이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인 사회역량과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고 평가하고 표현하고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인 정서역량을 포괄하는 용어로,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자 향후 성인기 삶에서의 성과를 예측하는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다(김은정, 김춘화, 이상수, 2015; 김경희 외, 20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아동의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는

7) 아동균형생활시간 권장기준 : 아동이 하루 동안 경험하는 4개 핵심 생활시간(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을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립수면재단(NSF), 호주 보건부의 권장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한 기준을 의미함(정익중 외, 2016; 정익중 외 2022에서 재인용).

등 일상생활의 변화로 부모·또래·교사 등과 교류가 줄어든 상황이 아동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협업과 같은 여러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김경희 외, 2020).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아동의 대인관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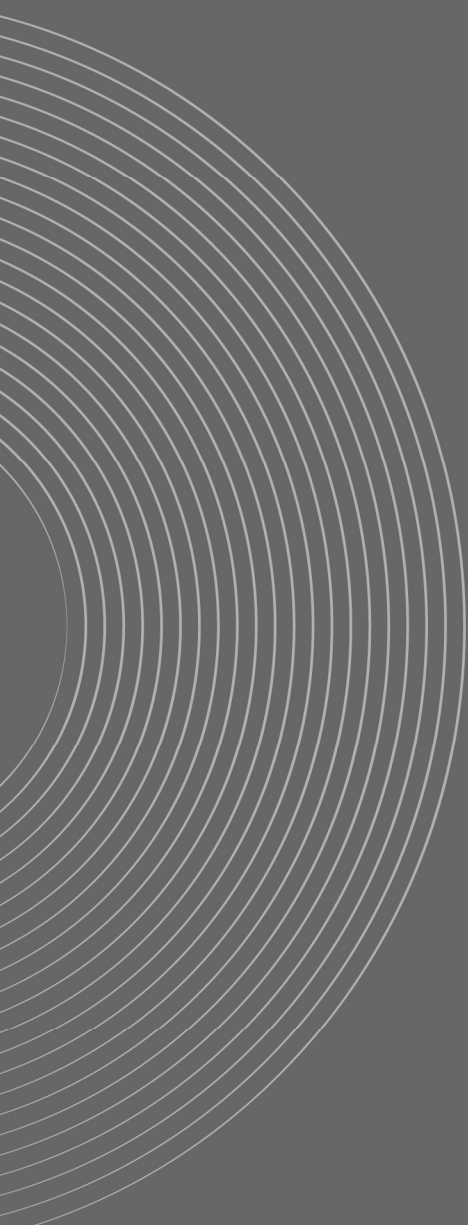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신체발달부터 사회발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아동발달 저하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생활하기 위해 청소년기에 발달해야 하는 능력인 생활역량(윤명희, 김진화, 2008)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생활역량이란, 일상생활 적응과 문제해결과정, 대면적 상호작용 기회 등을 통해 발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아동이 느끼는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스마트폰 의존도 증가가 생활역량을 낮추는 요인이 됨이 밝혀지기도 하였다(김웅수, 김재희, 2022).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인지 등 발달 저하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발달 저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수의 연구들은 재난으로 당면한 일상의 변화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는데, 최근 실태조사를 넘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위험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 심리·인지발달 등 발달 유형을 특정하여 영향요인을 살펴보기도 했으나 횡단자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종단적 발달을 탐색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과 1년 뒤인 2021년에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모두 참석한 아동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이후 발달 추이를 파악하고 일상생활 변화와 심리정서 문제, 온라인 교육환경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아동발달 영향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Ⅱ. 조사 설계

II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아동의 발달추이를 확인하고, 아동발달에 긍정·부정적으로 관련된 요인들과 발달에 취약한 특성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아동발달 관련 요인 탐색에는 코로나19 이후 여러 채널에서 제기된 아동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 변화와 심리적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투입하여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아동발달과 예측요인에 보다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에서 2020년과 2021년에 실시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에서 지역별, 아동 연령별 비례할당을 통해 자료를 수집되었으며, 설문문항 응답이 어려운 만4~9세 아동은 보호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아동의 발달추이를 확인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 개인 및 가족의 변화가 아동발달에 관여하는 종단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2020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아동 1,367명과 그 보호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2.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개요

구분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2021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조사 대상	만 4세~고등학교 3학년 아동 및 보호자 (*만 4세~9세 아동 설문은 보호자 대리 응답)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0년 6월 19일~25일(7일간)	2021년 4월 1일~5월 3일(33일간) (※ 2020년 동일패널 수집으로 조사 수행 기간 증가)
조사 규모	아동 3,308명 / 보호자 3,308명	아동 3,927명 / 보호자 3,927명
분석대상	아동 1,367명 / 보호자 1,367명 (2020년, 2021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	

2

지표 체계

설문조사는 아동용과 부모용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자세한 지표 내용은 <표 3>, <표 4>와 같다. 아동용 지표는 심리정서(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감정 변화, 코로나 블루 정도), 가정환경(아동학대, 온라인 폭력, 가정 내 체벌 경험, 가정 폭력 목격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식습관, 수면 및 여가 활동 시간, 스트레스 요인 및 어려움 정도,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집·동네·코로나 등으로부터 안전인식)으로 구분되었다.

표 3. 아동용 지표 구성

영역	조사 항목 ¹⁾	출처	문항 수	범위
심리정서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감정 변화 (행복한, 불안한)	Israel(2020)	2	0-10
	코로나 블루 정도*	이봉주 외(2021)	1	0-10
가정환경	아동학대 경험*	이봉주 외(2018) 수정	9	0-11 (유=1, 무=0 변환·합산)
	가정 내 체벌 경험*	이봉주 외(2020)	1	
	가정폭력 목격 경험*	이봉주 외(2020)	1	
	온라인 상 폭력 및 성 착취 경험*	이봉주 외(2020)	3	0-3 (유=1, 무=0 변환·합산)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변화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식습관 변화	이봉주 외(2018)	5	0-3
	수면 및 여가 활동 시간	이봉주 외(2018)	2	연속
	최근 스트레스 요인 및 어려움 정도 (공부·친구·가족·외모·경제적·코로나)	이봉주 외(2018) 수정	6	0-10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 만족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Germany(2020) 수정	2	0-10
	코로나19 이후 건강상태	이봉주 외(2020)	1	0-10
	안전인식* (집·동네·우리나라·코로나바이러스)	Israel(2020)	4	0-4

※ 해당 문항은 초등 고학년생 이상 아동만 응답한 문항

다음으로 부모용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아동 반응(신체·인지·감정·행동 발달), 심리정서(돌봄 및 양육스트레스,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불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가정에서의 어려움, 돌봄 공백, 온라인 교육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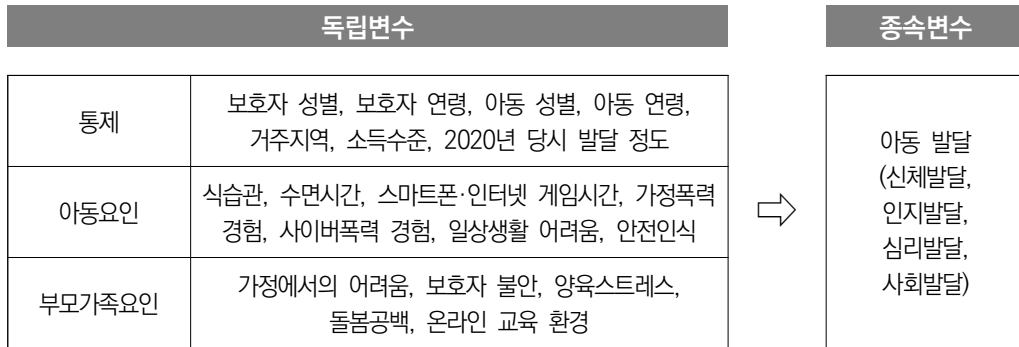
표 4. 부모용 지표 구성

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 수	범위
코로나19 이후 아동 반응	신체·인지·감정·행동 발달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참고	4	0-3 평균
심리정서	돌봄 및 양육스트레스	육아정책연구소·한국발달심리학회 (2020)	1	0-10
	코로나19 이후 보호자 감정(불안)	Israel(2020)	1	0-10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	가정에서의 어려움	이봉주 외(2020)	10	0-3 평균
	나홀로 아동(돌봄 공백)	이봉주 외(2018) 변형	1	돌봄공백 (유=1, 무=0)
	온라인 교육 환경	아동권리보장원 (2020)	6	0-3 평균

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의 아동발달 실태와 변화 추이, 그리고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아동발달은 큰 틀에서 신체·인지·심리·사회적 발달 4가지로 구분하였다. 아동발달 관련 영향요인으로는 여러 연구와 언론에서 제기된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생활 변화와 부모·가족을 포함한 환경의 변화, 심리정서 등을 중심으로 투입하였으며, 세부 활용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식습관, 수면시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보호자의 불안과 양육스트레스, 돌봄 공백, 온라인 교육 환경이다. 가정폭력 경험, 사이버폭력 경험, 일상생활 어려움과 안전인식은 초등학교 고학년 모형에만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이 외에 아동의 연령·성별, 보호자의 연령·성별, 거주 지역, 가구의 소득수준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5. 연구 모형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의 아동 발달추이는 대응표본 t검정을, 아동발달 관련 요인 탐색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코로나19라는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발달 영역은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발달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신체발달은 신체발달의 변화,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발달은 인지발달의 변화, 공부의 어려움, 온라인 수업만족도, 심리발달은 감정발달의 변화, 행복, 불안, 코로나 블루, 사회발달은 행동발달의 변화, 부모관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이다. 아동발달 문항은 2020년과 2021년, 두 시점에 모두 측정되었는데 종속변수는 2021년에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6. 종속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
신체 발달	신체발달의 변화	-내용: 최근 3개월 간 부모가 인지한 아동의 불면,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신체반응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주관적 건강상태	- 내용: 코로나 19 발생 이후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의 변화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매우 나빠짐, ⑤ 비슷함, ⑩ 매우 좋아짐
인지 발달	인지발달의 변화	- 내용: 최근 3개월 간 부모가 인지한 판단력과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반응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공부의 어려움	- 내용: 코로나 19 발생 이후 최근 1개월 간 공부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정도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전혀 느끼지 않음, ⑤ 보통, ⑩ 매우 많이 느낌
	온라인 수업만족도	- 내용: 최근 3개월 동안 '등교 및 수업'에 대한 만족도 정도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매우 불만족, ⑤ 보통, ⑩ 매우 만족
심리 발달	감정발달의 변화	- 내용: 최근 3개월 간 부모가 인지한 우울, 무력감, 불안 등의 감정반응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행복	- 내용: 최근 2주 동안 행복감을 느낀 정도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전혀 느끼지 않음, ⑤ 보통, ⑩ 매우 많이 느낌
	불안	- 내용: 최근 2주 동안 불안감을 느낀 정도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전혀 느끼지 않음, ⑤ 보통, ⑩ 매우 많이 느낌
	코로나 블루	- 내용: 최근 3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낀 정도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매우 낮음, ⑤ 보통, ⑩ 매우 높음
사회 발달	행동발달의 변화	- 내용: 최근 3개월 간 부모가 인지한 과한 의심, 경계심, 대인관계 회피 등의 행동반응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부모관계 만족도	- 내용: 최근 3개월 동안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 정도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매우 불만족, ⑤ 보통, ⑩ 매우 만족
	친구관계 만족도	- 내용: 최근 3개월 동안 친구들과의 관계 만족 정도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매우 불만족, ⑤ 보통, ⑩ 매우 만족

2. 독립변수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식습관과 수면시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가정폭력 경험, 사이버폭력 경험, 일상생활 어려움과 안전인식을 살펴보았다. 부모와 가족 관련 요인으로는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과 불안, 양육스트레스, 돌봄공백 여부 그리고 온라인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식습관, 수면시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가정폭력 경험, 사이버폭력 경험, 일상생활 어려움과 안전인식은 아동 대상 문항이며,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 불안, 양육스트레스, 돌봄공백, 온라인 교육환경 문항은 보호자가 응답하였다. 단, 만4-9세 아동의 경우 아동 대상 문항도 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7.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
식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최근 3개월 동안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할 때의 식습관 (1주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고 해당 음식들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응답) - 문항: 총 6문항 (규칙적인 식사/신선한 채소와 과일/고기/우유/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배달 음식 섭취 정도) - 측정: 평균값 사용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수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최근 3개월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수면시간 - 측정: 시간(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최근 3개월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시간 (학습을 위한 사용시간 제외) - 측정: 시간(분)
가정폭력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가정폭력 경험 정도 - 문항: 총 9문항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꼬집히거나 주먹/발로 폭행을 당하거나, 벨트, 몽둥이와 같은 도구로 맞은 적이 있는지 등) - 측정: 평균값 사용 (① 전혀 없었음, ② 몇 번 있었음, ③ 자주 있었음)
사이버폭력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폭력 경험 여부 - 문항: 총 3문항 (채팅/게시판/게임/SNS 등에서 욕설/폭언/악플을 받아보거나 성적 수치심/불쾌감 등을 느낀 경험) - 측정: ① 경험 없음, ① 경험 있음
일상생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최근 1개월간 친구, 가족, 외모,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 - 문항: 총 4문항(친구, 가족, 외모, 코로나, 경험 정도) - 측정: 평균값 사용 (① 전혀 느끼지 않음, ⑤ 보통, ⑩ 매우 많이 느낌)
안전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 문항: 총 4문항 (코로나 바이러스, 가정/동네/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 측정: 평균값 사용, 5점 리커트 척도
가정 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최근 3개월간 가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정도 - 문항: 총 10문항 (장시간의 돌봄 상황, 자녀를 맡기고 부탁할 자원의 불충분으로 인한 돌봄공백,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재택근무 중 양육과 회사 업무의 병행, 자녀의 놀이 욕구 해결, 자녀의 인터넷/게임 이용 및 TV시청 통제, 자녀의 온라인 학습 및 숙제 점검, 자녀와의 의견 대립, 가정의 경제적 상황, 부부간의 의견 대립 및 갈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 - 측정: 평균값 사용, 4점 리커트 척도
보호자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최근 3개월 동안 불안한 감정을 느낀 정도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전혀 느끼지 않음, ⑤ 보통, ⑩ 매우 많이 느낌

변수	정의 및 측정
양육 스트레스	- 내용: 최근 3개월간 자녀가 등교/등원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매우 낮았음, ⑤ 보통, ⑩ 매우 높았음
돌봄공백	- 내용: 최근 3개월 동안 성인 보호자 없이 자녀가 혼자 있거나 자녀들끼리만 집에 있었던 정도를 파악한 후, 일주일에 1일 이상인 경우를 돌봄 공백으로 정의 - 문항: 단일문항 - 측정: ① 늘 성인보호자와 함께함, ① 아동 혼자 일주일에 1일 이상 혼자 지냄
온라인 교육 환경	- 내용: 최근 3개월간 자녀가 등교/등원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녀의 온라인 수업 및 활동과 관련된 상황 - 문항: 총 6문항 (가정 내 온라인 수업 받을 장소와 공간 마련, 온라인 수업 학습기기 준비, 수업 시간표 및 교구, 가정통신문 등 미리 확인, 공적 자원 및 사적 자원 활용, 온라인 수업 이용방법 및 진행 관련 문의 및 정보 얻기) - 측정: 평균값 사용, 4점 리커트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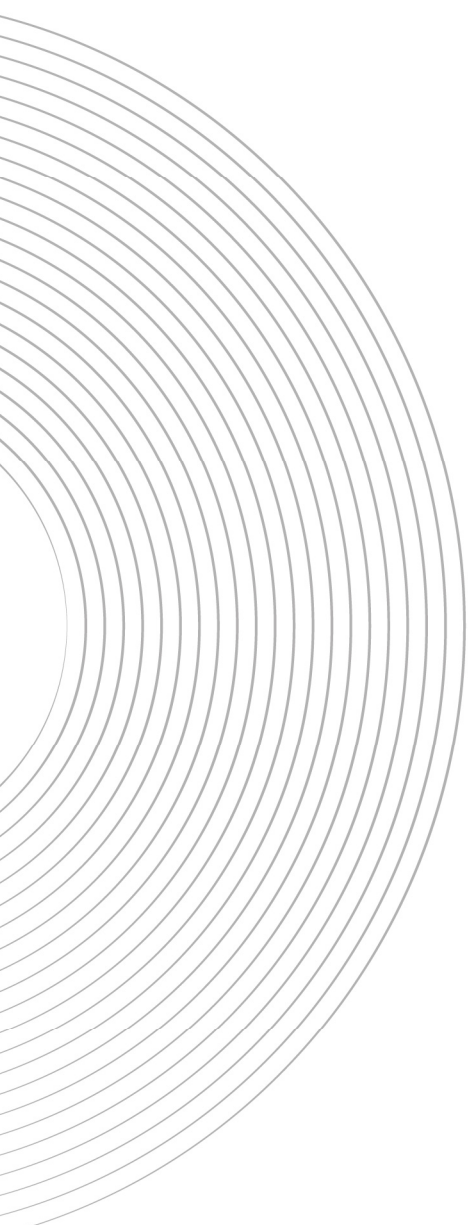
3. 통제변수

코로나19 발생 이후 환경변화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인은 아동과 보호자의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 규모, 소득 수준, 그리고 2020년 시점에서의 아동 발달(신체, 인지, 감정, 행동 발달)정도이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성별은 남자(1), 여자(0)로, 거주 지역은 대도시(1), 중소도시·농어촌(0)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2020년 조사된 아동 발달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8. 통제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
성별(보호자/아동)	- 남자(1), 여자(0)
연령(보호자/아동)	- 응답 당시 만 나이
거주 지역	- 대도시(1), 중소도시·농어촌(0)
소득 수준	- 내용: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가구 평균 소득 수준 - 측정: ① 200만원 미만, ② 200~400만원 미만, ③ 400~600만원 미만 ④ 600~800만원 미만, ⑤ 800만원 이상

변수	정의 및 측정
신체발달의 변화 (2020년)	- 내용: 코로나19 이후 부모가 인지한 아동의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신체반응 - 문항 및 측정: 단일문항, 리커트척도
인지발달의 변화 (2020년)	- 내용: 코로나19 이후 부모가 인지한 판단력과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반응 - 문항 및 측정: 단일문항, 리커트척도
감정발달의 변화 (2020년)	- 내용: 코로나19 이후 부모가 인지한 우울, 무력감, 불안 등의 감정반응 - 문항 및 측정: 단일문항, 리커트척도
행동발달의 변화 (2020년)	- 내용: 코로나19 이후 부모가 인지한 과한 의심, 경계심, 대인관계 회피 등의 행동반응 - 문항 및 측정: 단일문항, 리커트척도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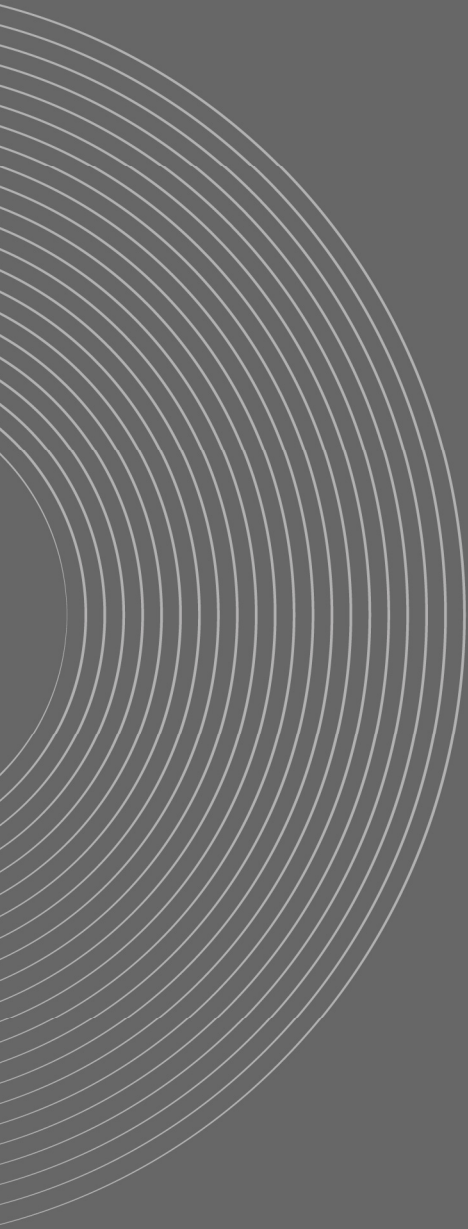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Ⅲ. 코로나19와 아동발달

III

코로나19와 아동발달

1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발달 추이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2020년과 2021년 진행된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과 보호자 성별은 모두 50%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아동의 학년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이 58.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동은 41.0%이다. 초등 저학년(29.7%) > 미취학 아동(29.2%) > 초등 고학년(16.8%) > 중학생(15.1%) > 고등학생(9.1%)순이다. 가구형태는 양부모가정이 94.1%로 대부분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월평균 소득은 400~600만 원 미만인 35.6%, 200~400만 원 미만인 31.7% 순이었고,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3.4%이다. 아동 혼자 일주일에 1일 이상 성인보호자 없이 있었던 것을 돌봄 공백(나홀로 아동)이라 정의할 때, 늘 성인보호자와 함께 있었다는 가정은 61.8%, 일주일에 1일 이상 아동 혼자 있었다고 응답한 돌봄 공백 가정은 38.2%였다.⁸⁾

8)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는 2020년, 2021년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II」 연구에 모두 참여한 1,367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II」 보고서에 명시된 통계와 상이함을 밝힌다.

표 9.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N(%)

구 분			아동전체
	성별	여자	676(49.5)
		남자	691(50.5)
아동	학년	미취학 아동(만4-6세)	399(29.2)
		초등 저학년(초1-초3)	406(29.7)
		초등 고학년(초4-초6)	230(16.8)
		중학생(중1-중3)	207(15.1)
		고등학생(고1-고3)	125(9.1)
보호자	성별	여자	631(46.2)
		남자	736(53.8)
	연령	만30-39세	494(36.1)
만40-49세		825(60.4)	
만50-59세		48(3.5)	
가정	가구 형태	양부모가정	1,287(94.1)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80(5.8)
	코로나이후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1(5.2)
		200~400만 원 미만	434(31.7)
		400~600만 원 미만	487(35.6)
		600~800만 원 미만	252(18.4)
800만 원 이상		123(9.0)	
가구 소득 변화	감소함	457(33.4)	
	동일함	883(64.6)	
	증가함	27(2.0)	
거주지역	대도시	755(55.2)	
	중소도시·농어촌	612(44.8)	
돌봄 공백 정도	늘 성인보호자와 함께	845(61.8)	
	아동 혼자 일주일 1일 이상	522(38.2)	
전 체			1,367(100.0)

· 2020년 설문조사 참여대상 기준으로 작성

2. 코로나19와 아동발달 추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발달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2020년 설문조사 측정값을 사전으로, 2021년 설문조사 측정값을 사후로 하여 분석한 결과, 신체 발달 영역에서는 ‘신체발달의 변화’와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 인지발달 영역에서는 ‘인지발달의 변화’에서, 심리발달 영역에서는 ‘감정발달의 변화’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발달의 변화’는 증가했고 (2020’ 1.18 → 2021’ 1.25, $p < .01$) 반대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평가는 감소했다 (2020’ 5.14 → 2021’ 4.82, $p < .001$). ‘인지발달의 변화’(2020’ 1.16 → 2021’ 1.30, $p < .001$)와 ‘감정발달의 변화’도 증가하였다(2020’ 1.28 → 2021’ 1.39, $p < .001$).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식욕저하, 두통, 판단력·집중력 저하, 우울, 무력감 등은 증가하고 아동이 느끼는 건강상태는 나빠진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아동발달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코로나19와 아동발달 추이

평균(S.D.)

구분	1차 조사(2020)	2차 조사(2021)	t(p)	평균 변화
	평균(S.D.)	평균(S.D.)		
[신체발달]				
신체발달의 변화	1.18(.76)	1.25(.77)	-2.799**	▲
주관적 건강상태	5.14(1.21)	4.82(1.52)	7.312***	▼
[인지발달]				
인지발달의 변화	1.16(.72)	1.30(.78)	-6.078***	▲
[심리발달]				
감정발달의 변화	1.28(.76)	1.39(.75)	-5.124***	▲
행복	6.14(1.70)	6.18(1.72)	-.750	△
불안	4.35(2.18)	4.38(2.08)	-.464	△
[사회발달]				
행동발달의 변화	1.11(.77)	1.11(.77)	-.091	○

*** $p < .001$, ** $p < .01$, * $p < .05$ (n=1,367)

- 신체발달의 변화, 인지발달의 변화, 감정발달의 변화, 행동발달의 변화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호자가 인지한 아동의 발달 반응을 의미함
- 아동의 인지발달 중 ‘온라인 수업만족도’와 심리발달 중 ‘코로나 블루’는 2021년에만 조사된 항목으로 발달추이 분석(대응 표본 t검정)에서는 제외하고 영향요인 탐색(회귀분석)에만 활용함

2

코로나19 시기, 아동발달 관련 요인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19 시기에 아동의 일상생활 변화와 부모·가족을 포함한 환경의 변화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재난 발생 이후 아동발달 영향요인과 발달에 취약한 위기아동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동발달은 크게 4가지 영역이며, 세부지표의 경우 신체발달 영역은 ‘신체발달의 변화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발달 영역은 ‘인지발달의 변화’, 심리발달 영역은 ‘감정발달의 변화와 행복, 불안’, 사회발달 영역은 ‘행동발달의 변화’로, 총 7개 발달 사항이다. 아동의 일상생활 변화와 부모·가족을 포함한 환경적인 변화를 영향요인으로 투입하여 아동발달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1. 코로나19와 아동의 신체발달

1) 신체발달의 변화

‘신체발달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불면,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반응이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는지 여부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아동요인으로는 식습관과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부모·가족요인으로는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보호자 불안, 양육스트레스가 ‘신체발달의 변화’의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에게 긍정적인 식습관이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부정적인 신체발달은 감소하나($\beta = -0.059, p < .05$), 아동의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이 증가할 경우 아동의 부정적인 신체발달은 증가하였다($\beta = 0.067, p < .05$).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beta = 0.105, p < .01$), 불안($\beta = 0.068, p < .05$), 양육스트레스($\beta = 0.098, p < .01$)가 심화되는 경우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신체발달은 저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1. 아동의 신체발달 변화 관련 요인

구분		아동전체		
		B	β	t
상수(Constant)		.504		1.984*
통제	보호자 성별	.011	.007	.280
	보호자 연령	.000	.002	.057
	아동 성별	-.037	-.024	-.986
	아동 연령	-.001	-.004	-.114
	거주지역	-.015	-.010	-.400
	소득수준	-.016	-.022	-.864
	2020 신체발달	.290	.287	10.759***
아동 요인	식습관	-.101	-.059	-2.186*
	수면시간	.000	-.037	-1.490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1	.067	2.506*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170	.105	3.361**
	보호자 불안	.024	.068	2.569*
	양육스트레스	.041	.098	3.241**
	돌봄 공백	.040	.025	.866
	온라인 교육 환경	-.018	-.011	-.437

R²=.219, adj.R²=.210, F=25.258***, Durbin-Watson=2.024

***p<.001, **p<.01, *p<.05 (n=1,367)

2)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이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만4세~초등3학년(미취학~초등저학년 이하 아동)은 보호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요인에서는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이, 부모·가족요인으로는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온라인 교육 환경이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시간이 증가하고($\beta=-0.083$, $p<.01$),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가중($\beta=-0.117$,

p<.001)되는 경우 아동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이 긍정적일수록($\beta=0.062$, $p<.05$) 아동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표 12.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

구분		아동전체		
		B	β	t
상수(Constant)		3.754		6.693***
통제	보호자 성별	.140	.046	1.668
	보호자 연령	-.008	-.026	-.806
	아동 성별	-.023	-.007	-.293
	아동 연령	-.038	-.097	-2.611**
	거주지역	.052	.017	.657
	소득수준	-.027	-.018	-.686
	2020 주관적 건강상태	.329	.261	9.922***
아동 요인	식습관	.101	.030	1.067
	수면시간	.000	-.018	-.693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1	-.083	-2.968**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373	-.117	-3.578***
	보호자 불안	-.004	-.005	-.196
	양육스트레스	.039	.047	1.489
	돌봄 공백	.188	.060	1.969
	온라인 교육 환경	.206	.062	2.327*

$R^2=.134$, $adj.R^2=.124$, $F=13.912^{***}$, Durbin-Watson=2.009

***p<.001, **p<.01, *p<.05 (n=1,367)

· 미취학·초등저학년 아동은 부모 대리응답

2. 코로나19와 아동의 인지발달

1) 인지발달의 변화

'인지발달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인지 반응이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는지 여부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아동의 식습관, 보호자가 가정 내에서 겪는 어려움, 보호자의 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인지발달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긍정적인 식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부정적인 인지발달이 감소하나($\beta=-0.071$, $p<.01$)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beta=0.100$, $p<.01$), 불안($\beta=0.116$, $p<.001$), 양육스트레스($\beta=0.115$, $p<.001$)가 증가하는 경우 아동의 인지발달은 저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3. 아동의 인지발달 변화 관련 요인

구분		아동전체		
		B	β	t
상수(Constant)		.605		2.343*
통제	보호자 성별	-.006	-.004	-.141
	보호자 연령	-.005	-.031	-1.021
	아동 성별	.018	.012	.488
	아동 연령	.013	.062	1.761
	거주지역	-.065	-.041	-1.677
	소득수준	-.013	-.017	-.655
	2020 인지발달	.250	.232	8.655***
아동 요인	식습관	-.123	-.071	-2.620**
	수면시간	.000	-.014	-.577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0	.037	1.374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164	.100	3.207**
	보호자 불안	.042	.116	4.374***
	양육스트레스	.049	.115	3.763***
	돌봄 공백	.055	.034	1.187
	온라인 교육 환경	-.023	-.014	-.546

$R^2=.212$, $adj.R^2=.204$, $F=24.292***$, Durbin-Watson=1.977

*** $p<.001$, ** $p<.01$, * $p<.05$ (n=1,367)

3. 코로나19와 아동의 심리발달

1) 감정발달의 변화

'감정발달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불안, 우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정서 반응이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는지 여부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아동요인에서는 식습관이, 부모·가족요인에서는 보호자의 일상생활 어려움 및 보호자 불안·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발달 관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아동의 식습관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감정발달의 변화'는 감소하였다($\beta=-0.103, p<.001$). 반대로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beta=0.115, p<.001$), 불안($\beta=0.089, p<.01$), 양육스트레스($\beta=0.119, p<.001$)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발달의 변화'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정에서 긍정적인 식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이 증가하며 불안과 양육스트레스가 심화되는 상황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불안, 우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발달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아동의 감정발달 변화 관련 요인

구분		아동전체		
		B	β	t
상수(Constant)		.741		3.055**
통제	보호자 성별	-.041	-.028	-1.077
	보호자 연령	-.005	-.030	-.999
	아동 성별	-.005	-.003	-.145
	아동 연령	.012	.060	1.730
	거주지역	-.052	-.034	-1.423
	소득수준	.004	.005	.197
	2020 감정발달	.269	.274	10.359***
아동 요인	식습관	-.171	-.103	-3.901***
	수면시간	.000	-.004	-.164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0	.042	1.590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181	.115	3.772***
	보호자 불안	.031	.089	3.395**
	양육스트레스	.049	.119	3.998***
	돌봄 공백	-.046	-.030	-1.047
	온라인 교육 환경	-.019	-.011	-.465

$R^2=.245$ adj. $R^2=.237, F=29.255^{***},$ Durbin-Watson=1.975

*** $p<.001, **p<.01, *p<.05$ (n=1,367)

2) 행복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동 '행복'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아동요인으로는 식습관, 수면시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이, 부모·가족요인으로는 보호자의 불안 및 온라인 교육 환경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이 긍정적인 식습관($\beta=0.075$, $p<.01$)과 충분한 수면시간($\beta=0.054$, $p<.05$)을 갖고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이 긍정적인 경우($\beta=0.069$, $p<.01$) 아동 행복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아동의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beta=-0.104$, $p<.001$), 보호자의 불안($\beta=-0.078$, $p<.001$)이 증가하는 상황은 아동의 행복을 줄이는 예측요인이었다.

표 15. 아동의 행복 관련 요인

구분		아동전체		
		B	β	t
상수(Constant)		3.135		5.332***
통제	보호자 성별	.073	.021	.817
	보호자 연령	.017	.048	1.598
	아동 성별	-.013	-.004	-.153
	아동 연령	-.045	-.101	-2.888**
	거주지역	.163	.047	1.922
	소득수준	.008	.005	.193
	2020 아동 행복	.331	.328	12.772***
아동 요인	식습관	.286	.075	2.775**
	수면시간	.001	.054	2.177*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2	-.104	-3.915***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113	-.031	-1.018
	보호자 불안	-.062	-.078	-2.973**
	양육스트레스	-.030	-.032	-1.047
	돌봄 공백	.081	.023	.793
	온라인 교육 환경	.261	.069	2.760**

$R^2=.223$, adj. $R^2=.215$, $F=25.897$ ***, Durbin-Watson=2.001

*** $p<.001$, ** $p<.01$, * $p<.05$ (n=1,367)

3) 불안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부모·가족요인 중 보호자의 불안이 아동의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난 상황에서 보호자의 불안 증가는 아동의 불안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beta=0.141, p<.001$).

표 16. 아동의 불안 관련 요인

구 분		아동전체		
		B	β	t
상수(Constant)		2.387		3.508***
통제	보호자 성별	.146	.035	1.353
	보호자 연령	-.021	-.047	-1.591
	아동 성별	-.113	-.027	-1.140
	아동 연령	.120	.222	6.386***
	거주지역	-.044	-.010	-.430
	소득수준	.032	.016	.643
	2020 아동 불안	.289	.303	11.528***
아동 요인	식습관	-.239	-.052	-1.946
	수면시간	.000	-.029	-1.201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1	.024	.921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256	.059	1.920
	보호자 불안	.137	.141	5.289***
	양육스트레스	.044	.039	1.302
	돌봄 공백	-.085	-.020	-.690
	온라인 교육 환경	-.071	-.015	-.627

$R^2=.237, adj.R^2=.229, F=28.002***, Durbin-Watson=1.942$

*** $p<.001, **p<.01, *p<.05$ (n=1,367)

4. 코로나19와 아동의 사회발달

1) 행동발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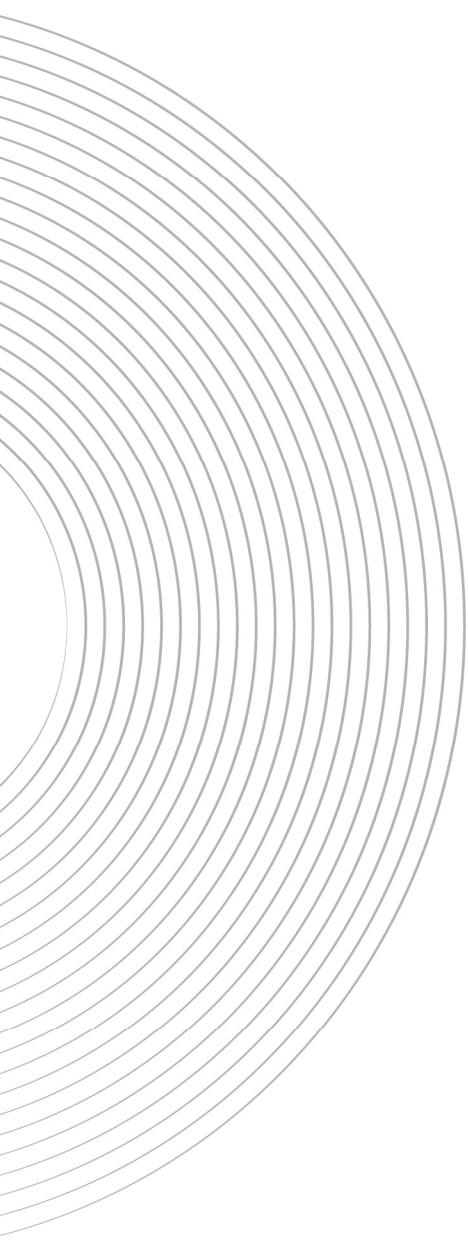
행동발달의 변화는 재난 발생 이후 과한 의심과 경계심, 대인관계회피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반응이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는지 여부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아동요인에서는 식습관이, 부모·가족요인에서는 보호자의 일상생활 어려움 및 보호자 불안·양육스트레스가 아동 행동발달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코로나19 신체·인지·정서반응과 유사한 결과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식습관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부정적인 행동발달은 감소하였고($\beta=-0.071, p<.05$), 반대로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beta=0.113, p<.001$), 불안($\beta=0.083, p<.01$), 양육스트레스($\beta=0.067, p<.05$)가 증가하는 경우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발달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기간에 아동에게 긍정적인 식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호자의 가정생활 어려움이 증가하고 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심화되는 상황은 재난상황에서 아동에게 과한 의심과 경계심, 대인관계회피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발달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7. 아동의 행동발달 변화 관련 요인

구분		아동전체		
		B	β	t
상수(Constant)		.528		2.013*
통제	보호자 성별	.029	.019	.684
	보호자 연령	.001	.005	.175
	아동 성별	.028	.018	.733
	아동 연령	-.005	-.024	-.666
	거주지역	-.034	-.022	-.861
	소득수준	-.027	-.036	-1.364
	2020 행동발달	.229	.229	8.510***
아동 요인	식습관	-.120	-.071	-2.547*
	수면시간	.000	-.040	-1.584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0	.045	1.639
부모·가 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181	.113	3.500***
	보호자 불안	.030	.083	3.033**
	양육스트레스	.028	.067	2.150*
	돌봄 공백	.044	.028	.939
	온라인 교육 환경	.003	.002	.073

$R^2=.164, adj.R^2=.154, F=17.630***, Durbin-Watson=1.951$

*** $p<.001, **p<.01, *p<.05 (n=1,367)$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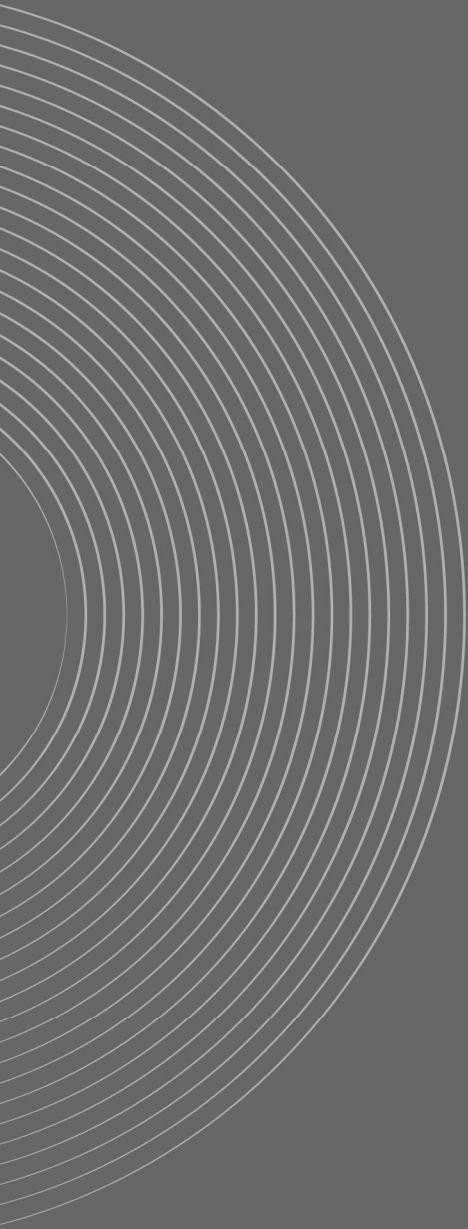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IV. 아동 연령별 코로나19와 아동발달

IV

아동 연령별, 코로나19와 아동발달

1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발달 추이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미취학·초등1-3학년)과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초등4~6학년·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의 성별은 남자의 비율이 높고(남 51.6%, 여48.4%),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은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남 49.1%, 여 50.9%). 학년은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 805명(58.9%),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 562명(41.0%)이다.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소득의 경우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의 가정은 200~400만 원 미만(36.0%) > 400~600만 원 미만(34.0%) 순이고,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의 가정은 400~600만 원 미만(37.9%) > 200~400만 원 미만(25.6%) 순이었다.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 저학년 이하 가정은 29.7%, 초등 고학년 이상 가정은 38.8%이다. 아동 혼자 일주일에 1일 이상 성인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있었던 것을 돌봄 공백이라 정의할 때 초등 저학년 이하 가정은 19.0%,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은 65.7%가 돌봄 공백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표 18. 아동 연령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N(%)

구분		초등 저학년 이하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	성별	여자	390(48.4)	286(50.9)
		남자	415(51.6)	276(49.1)
	학년	미취학 아동(만4-6세)	399(29.2)	-
		초등 저학년(초1-초3)	406(29.7)	-
		초등 고학년(초4-초6)	-	230(16.8)
	중학생(중1-중3)	-	207(15.1)	
	고등학생(고1-고3)	-	125(9.1)	
보호자	성별	여자	312(38.8)	319(56.8)
		남자	493(61.2)	243(43.2)
	연령	만30-39세	426(52.9)	68(12.1)
		만40-49세	361(44.8)	464(82.6)
만50-59세		18(2.2)	30(5.3)	
가정	가구 형태	양부모가정	762(94.7)	525(93.4)
		그 외 ⁹⁾	43(5.3)	37(6.6)
	코로나이후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3(4.1)	38(6.8)
		200~400만 원 미만	290(36.0)	144(25.6)
		400~600만 원 미만	274(34.0)	213(37.9)
		600~800만 원 미만	143(17.8)	109(19.4)
		800만 원 이상	65(8.1)	58(10.3)
	가구 소득 변화	감소함	239(29.7)	218(38.8)
		동일함	547(68.0)	336(59.8)
		증가함	19(2.4)	8(1.4)
거주지역	대도시	435(54.0)	320(56.9)	
	중소도시·농어촌	370(46.0)	242(43.1)	
돌봄 공백 정도	늘 성인보호자와 함께	652(81.0)	193(34.3)	
	아동 혼자 일주일에 1일 이상	153(19.0)	369(65.7)	
전체		805(100.0)	562(100.0)	

· 2020년 설문조사 참여대상 기준으로 작성

9)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

2. 아동 연령에 따른 코로나19와 아동발달 추이

아동 연령별 아동발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설문조사 측정값을 사전으로 2021년 설문조사 측정값을 사후로 하여 분석하였다.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은 신체발달 영역에서 ‘신체발달의 변화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 발달 영역에서 ‘인지발달의 변화’, 심리발달 영역에서 ‘감정발달의 변화, 행복, 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신체발달의 변화’가 증가했고(2020’ 1.17 → 2021’ 1.23, $p < .05$)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증가하였다(2020’ 5.29 → 2021’ 4.97, $p < .001$). 또한 판단력·집중력 저하 등 ‘인지발달의 변화’가 부정적으로 심화되었으며(2020’ 1.18 → 2021’ 1.27, $p < .01$), 우울, 무력감 등 ‘감정발달의 변화’가 증가하였고(2020’ 1.29 → 2021’ 1.37, $p < .01$) ‘행복’이 증가하였으며(2020’ 6.14 → 2021’ 6.29, $p < .05$) ‘불안’은 감소하였다(2020’ 4.29 → 2021’ 4.12, $p < .05$).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은 신체발달 영역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발달 영역에서 ‘인지 발달의 변화와 공부의 어려움’, 심리발달 영역에서 ‘감정발달의 변화와 불안’, 사회발달에서는 ‘부모님과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아졌으며(2020’ 4.91 → 2021’ 4.60, $p < .001$), 부정적인 인지 발달은 증가하였다(2020’ 1.13 → 2021’ 1.34, $p < .001$). ‘공부의 어려움’은 감소하였으며(2020’ 6.25 → 2021’ 6.02, $p < .05$), 심리발달 영역에서 부정적인 ‘감정발달의 변화’(2020’ 1.27 → 2021’ 1.43, $p < .001$)과 ‘불안’(2020’ 4.45 → 2021’ 4.76, $p < .01$)이 증가하였다. 사회발달 영역에서는 ‘부모님과 관계’(2020’ 6.72 → 2021’ 6.96, $p < .01$)와 ‘친구와의 관계’(2020’ 5.84 → 2021’ 6.62, $p < .001$)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과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 간의 발달 추이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심리발달 영역의 ‘행복’과 ‘불안’에서 상이한 발달추이가 나타났다.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은 2020년보다 2021년에 행복이 증가하고 불안은 감소한 반면,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은 2020년보다 2021년에 행복은 감소하였고 불안은 증가하였다.

표 19. 아동 연령에 따른 코로나19와 아동발달 추이

평균(S.D.)

구분	초등 저학년 이하		t(p)	평균 변화	초등 고학년 이상		t(p)	평균 변화
	1차 조사 (2020)	2차 조사 (2021)			1차 조사 (2020)	2차 조사 (2021)		
[신체발달]								
신체발달의 변화	1.17(.75)	1.23(.78)	-2.018*	▲	1.19(.78)	1.26(.76)	-1.948	△
주관적 건강상태	5.29(1.15)	4.97(1.48)	6.242***	▼	4.91(1.25)	4.60(1.56)	4.133***	▼
[인지발달]								
인지발달의 변화	1.18(.72)	1.27(.79)	-3.018**	▲	1.13(.74)	1.34(.77)	-5.888***	▲
공부의 어려움※			-	-	6.25(2.05)	6.02(2.18)	2.215*	▼
[심리발달]								
감정발달의 변화	1.29(.75)	1.37(.74)	-2.844**	▲	1.27(.78)	1.43(.75)	-4.533***	▲
행복	6.14(1.64)	6.29(1.70)	-2.402*	▲	6.14(1.79)	6.02(1.74)	1.388	▽
불안	4.29(2.05)	4.12(2.07)	2.203*	▼	4.45(2.35)	4.76(2.03)	-2.871**	▲
[사회발달]								
행동발달의 변화	1.15(.76)	1.12(.76)	1.003	▽	1.05(.78)	1.10(.78)	-1.292	△
부모님과의 관계※			-	-	6.72(1.87)	6.96(1.86)	-2.776**	▲
친구들과의 관계※			-	-	5.84(1.99)	6.62(1.92)	-7.844***	▲

***p<.001, **p<.01, *p<.05

- 신체발달의 변화, 인지발달의 변화, 감정발달의 변화, 행동발달의 변화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호자가 인지한 아동의 발달반응을 의미함
- ‘※’는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 응답한 문항
- 아동의 인지발달 중 ‘온라인 수업만족도’와 심리발달 중 ‘코로나 블루’는 2021년에만 조사된 항목으로 발달추이 분석(대응표본 t 검정)에서는 제외하고 영향요인 탐색(회귀분석)에만 활용함

2

코로나19 시기, 아동 연령에 따른 아동발달 관련 요인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발달 영향요인과 발달에 취약한 위기아동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동 연령별 구분은 '초등 저학년 이하와 초등 고학년 이상' 이다.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에는 미취학 아동(만4-6세)과 초등 저학년(초1-초3) 아동이 포함되며,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에는 초등 고학년(초4-초6), 중학생(중1-중3), 고등학생(고1-고3) 아동이 포함된다.

앞서 기술한 3장(코로나19와 아동발달)과 동일하게 아동발달을 신체발달 영역, 인지발달 영역, 심리발달 영역, 사회발달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하위 발달지표에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이 직접 응답한 발달지표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신체발달 영역에는 '신체발달의 변화와 주관적 건강상태' 2가지, 인지발달 영역에는 '인지발달의 변화, 공부의 어려움, 온라인 수업만족도' 3가지, 심리발달 영역에는 '감정발달의 변화, 행복, 불안, 코로나 블루' 4가지, 사회발달 영역에는 '행동발달의 변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3가지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아동 연령별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1. 코로나19와 아동의 신체발달

1) 신체발달의 변화

'신체발달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불면,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반응이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는지 여부를 보호자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에서는 아동요인으로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이, 부모·가족요인에서는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및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신체발달의 변화'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이 증가하고($\beta=0.078, p<.05$), 보호자의 가정생활 어려움($\beta=0.138, p<.01$)과 양육스트레스($\beta=0.104, p<.01$)가 심화될수록 아동이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에서는 아동요인으로 사이버폭력 경험 및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폭력 경험과($\beta=0.093, p<.05$) 일상생활 어려움($\beta=0.167, p<.001$)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신체발달의 변화'가 강화되었다.

표 20. 아동 연령에 따른 신체발달의 변화 관련 요인

구 분		초등 저학년 이하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362		1.155	.362		.696
통제	보호자 성별	.010	.006	.183	-.019	-.012	-.292
	보호자 연령	-.002	-.010	-.285	-.002	-.010	-.214
	아동 성별	-.043	-.028	-.882	-.015	-.010	-.258
	아동 연령	-.017	-.040	-1.125	.022	.065	1.340
	거주지역	.031	.020	.620	-.072	-.047	-1.221
	소득수준	-.041	-.053	-1.629	.019	.027	.676
	2020 신체발달	.288	.277	8.066***	.258	.266	6.218***
아동 요인	식습관	-.074	-.040	-1.143	-.052	-.033	-.766
	수면시간	.000	-.041	-1.255	.000	.012	.289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1	.078	2.326*	.000	.017	.423
	가정폭력 경험	/			.003	.009	.230
	사이버폭력 경험				.085	.093	2.348*
	일상생활 어려움				.071	.167	3.753***
	안전인식				-.033	-.029	-.676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234	.138	3.470**	.054	.036	.677
	보호자 불안	.022	.059	1.701	.018	.050	1.231
	양육스트레스	.045	.104	2.675**	.037	.092	1.920
	돌봄 공백	.100	.051	1.515	-.022	-.014	-.345
	온라인 교육 환경	.049	.030	.907	-.130	-.073	-1.804
		R ² =.236, adj.R ² =.222, F=16.266***, Durbin-Watson=2.012			R ² =.254, adj.R ² =.228, F=9.718***, Durbin-Watson=2.103		

***p<.001, **p<.01, *p<.05

2)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아동 연령을 구분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초등 저학년생 이하 아동(만4세~초등3학년)은 보호자가 대리 응답 하였다.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에서는 부모·가족요인 중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beta=-0.177$, $p<.001$), 반대로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beta=0.082$, $p<.05$).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의 휴원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아이돌보미 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미취학·초등 저학년 아동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나, 보호자와 가정 내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에서는 아동요인에서 사이버폭력 경험과 부모·가족요인에서는 온라인 교육 환경이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 경험이 증가하는 경우($\beta=-0.096$, $p<.05$)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온라인 교육 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beta=0.095$, $p<.05$).

표 21. 아동 연령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

구 분		초등 저학년 이하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2.799		4.261***	4.771		3.970***
통제	보호자 성별	.114	.037	1.100	.258	.082	1.796
	보호자 연령	.006	.019	.546	-.028	-.069	-1.366
	아동 성별	-.081	-.027	-.851	.094	.030	.716
	아동 연령	-.040	-.048	-1.318	-.040	-.057	-1.053
	거주지역	-.023	-.008	-.241	.084	.027	.630
	소득수준	.002	.002	.045	-.041	-.028	-.622
	2020 주관적 건강상태	.474	.369	11.270***	.143	.115	2.632**
아동 요인	식습관	.030	.009	.243	.149	.046	.969
	수면시간	.000	-.038	-1.137	.000	.009	.213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1	-.066	-1.933	-.001	-.071	-1.569
	가정폭력 경험	/			-.022	-.029	-.641
	사이버폭력 경험				-.180	-.096	-2.192*
	일상생활 어려움				.001	.001	.022
	안전인식				.031	.013	.271
가정에서의 어려움	-.571				-.177	-4.359***	-.089
부모 가족 요인	보호자 불안	.010	.015	.419	-.013	-.018	-.399
	양육스트레스	.067	.082	2.060*	-.014	-.016	-.310
	돌봄 공백	.009	.002	.071	.262	.080	1.800
	온라인 교육 환경	.176	.056	1.649	.344	.095	2.107*
			R ² =.195, adj.R ² =.180, F=12.743***, Durbin-Watson=2.047			R ² =.092, adj.R ² =.061, F=2.902***, Durbin-Watson=1.962	

***p<.001, **p<.01, *p<.05

2. 코로나19와 아동의 인지발달

1) 인지발달의 변화

'인지발달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인지 반응이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는지 여부를 보호자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의 경우 부모·가족요인에서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불안,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신체발달의 변화'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beta=0.122$, $p<.01$), 불안($\beta=0.113$, $p<.01$), 양육스트레스($\beta=0.120$, $p<.01$)가 증가할수록 아동의 판단력, 집중력 저하가 심화되었다.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요인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부모·가족요인에서는 보호자 불안 및 양육스트레스,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이 아동의 '인지발달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아동이 느끼는 일상생활 어려움이 증가할수록($\beta=0.178$, $p<.001$), 보호자의 불안($\beta=0.096$, $p<.05$) 및 양육스트레스($\beta=0.107$, $p<.05$)가 심화될수록 판단력,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인지발달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beta=-0.083$, $p<.05$)이 긍정적일수록 '인지발달의 변화'는 완화되었다.

표 22. 아동 연령에 따른 인지발달의 변화 관련 요인

구분		초등 저학년 이하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432		1.348	.366		.702
통제	보호자 성별	-.008	-.005	-.154	-.026	-.017	-.410
	보호자 연령	-.006	-.033	-.957	-.008	-.041	-.904
	아동 성별	-.020	-.013	-.404	.083	.054	1.431
	아동 연령	.005	.012	.324	.037	.106	2.197*
	거주지역	-.037	-.023	-.716	-.096	-.062	-1.629
	소득수준	-.021	-.027	-.815	.004	.006	.138
	2020 인지발달	.259	.235	6.726***	.177	.170	3.963***
아동 요인	식습관	-.102	-.055	-1.556	-.059	-.037	-.871
	수면시간	.000	-.027	-.833	.001	.053	1.329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0	.029	.850	.000	.018	.440
	가정폭력 경험	/			.021	.057	1.411
	사이버폭력 경험				.054	.059	1.494
	일상생활 어려움				.076	.178	4.002***
	안전인식				-.051	-.043	-1.019
가정에서의 어려움	.210				.122	3.046**	.037
부모 가족 요인	보호자 불안	.042	.113	3.206**	.034	.096	2.359*
	양육스트레스	.052	.120	3.026**	.044	.107	2.251*
	돌봄 공백	.049	.025	.723	.059	.036	.914
	온라인 교육 환경	.057	.034	1.021	-.149	-.083	-2.064*
			R ² =.215, adj.R ² =.200, F=14.422***, Durbin-Watson=1.981			R ² =.267, adj.R ² =.241, F=10.376***, Durbin-Watson=1.998	

***p<.001, **p<.01, *p<.05

2) 공부의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 정도는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공부문제에 대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아동요인에서는 식습관이, 부모·가족요인에서는 보호자의 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공부의 어려움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이 긍정적인일수록

공부의 어려움은 감소하였으나($\beta=-0.107, p<.05$) 부모의 불안($\beta=0.086, p<.05$) 및 양육스트레스($\beta=0.111, p<.05$)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공부 어려움은 증가하였다.

표 23.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10~17세)의 공부의 어려움 관련 요인

구분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상수(Constant)		2.234		1.457
통제	보호자 성별	-.254	-.058	-1.361
	보호자 연령	.025	.044	.954
	아동 성별	-.169	-.039	-.993
	아동 연령	.106	.108	2.149*
	거주지역	.271	.061	1.566
	소득수준	.114	.056	1.349
	2020 공부의 어려움	.265	.249	5.794***
아동 요인	식습관	-.490	-.107	-2.447*
	수면시간	-.001	-.022	-.538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0	.011	.255
	가정폭력 경험	.018	.017	.416
	사이버폭력 경험	-.105	-.040	-.983
	일상생활 어려움	-.033	-.027	-.582
	안전인식	-.089	-.027	-.611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312	.072	1.348
	보호자 불안	.087	.086	2.107*
	양육스트레스	.129	.111	2.262*
	돌봄 공백	.031	.007	.161
	온라인 교육 환경	-.381	-.075	-1.801
		R ² =.217, adj.R ² =.190, F=7.911***, Durbin-Watson=1.974		

***p<.001, **p<.01, *p<.05

3) 온라인수업 만족도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 만족도를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동요인 중 안전인식, 부모·가족요인 중 온라인 교육 환경이 아동의 온라인수업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가정, 학교, 국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beta=0.110, p<.05$),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beta=0.140, p<.01$) 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증가하였다.

표 24.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10~17세)의 온라인수업 만족도 관련 요인

구분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상수(Constant)		6.681		4.668***
통제	보호자 성별	-.046	-.012	-.262
	보호자 연령	-.024	-.048	-.986
	아동 성별	.145	.037	.907
	아동 연령	-.048	-.056	-1.055
	거주지역	.209	.054	1.295
	소득수준	.172	.095	2.172*
아동 요인	식습관	-.246	-.061	-1.314
	수면시간	-.001	-.032	-.739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1	-.043	-.983
	가정폭력 경험	-.077	-.083	-1.876
	사이버폭력 경험	.037	.016	.365
	일상생활 어려움	.039	.036	.756
	안전인식	.327	.110	2.404*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379	-.098	-1.753
	보호자 불안	.003	.003	.072
	양육스트레스	-.098	-.095	-1.840
	돌봄 공백	-.259	-.064	-1.462
	온라인 교육 환경	.634	.140	3.209**
		R ² =.126, adj.R ² =.097, F=4.359***, Durbin-Watson=1.948		

***p<.001, **p<.01, *p<.05

· ‘온라인수업 만족도’는 2021에만 조사된 문항으로 2020 측정값 없으며 통제변수 미포함

3. 코로나19와 아동의 심리발달

1) 감정발달의 변화

'감정발달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불안, 우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반응이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는지 여부를 보호자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의 경우 아동요인으로는 식습관이, 부모·가족요인으로는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및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감정발달 변화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인 식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우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발달이 완화되었으나($\beta = -0.089$, $p < .01$)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beta = 0.152$, $p < .001$)과 양육스트레스($\beta = 0.131$, $p < .01$)가 심화되는 것은 아동의 부정적 감정발달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요인으로 는 식습관 및 수면시간, 일상생활 어려움이, 부모·가족요인에서는 보호자 불안, 양육스트레스, 온라인 교육 환경이 아동의 감정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beta = -0.091$, $p < .05$)과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beta = -0.081$, $p < .05$)이 긍정적일 때 부정적인 감정발달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beta = 0.133$, $p < .01$), 보호자의 불안($\beta = 0.108$, $p < .01$) 및 양육스트레스($\beta = 0.110$, $p < .05$)와 같은 부정적 상황이 증가하면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발달은 증가하였다. 수면시간($\beta = 0.069$, $p < .05$)이 길어지는 상황이 부정적인 감정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심리적 부문의 논의는 수면시간의 질적인 부분과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등을 고려하여(정은혜, 이소연, 2017)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5. 아동 연령에 따른 감정발달의 변화 관련 요인

구 분		초등 저학년 이하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722		2.460*	.281		.547
통제	보호자 성별	-.028	-.018	-.558	-.097	-.064	-1.539
	보호자 연령	-.008	-.048	-1.441	-.001	-.003	-.077
	아동 성별	-.028	-.019	-.606	.033	.022	.571
	아동 연령	.000	.001	.029	.019	.056	1.160
	거주지역	-.008	-.005	-.175	-.104	-.069	-1.796
	소득수준	-.015	-.020	-.620	.027	.038	.954
	2020 감정발달	.278	.279	8.198***	.220	.228	5.248***
아동 요인	식습관	-.156	-.089	-2.608**	-.143	-.091	-2.136*
	수면시간	.000	-.023	-.731	.001	.069	1.711*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0	.041	1.252	.000	.009	.215
	가정폭력 경험	/			.000	-.001	-.013
	사이버폭력 경험				.066	.073	1.828
	일상생활 어려움				.056	.133	2.996**
	안전인식				.005	.005	.110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246	.152	3.908***	.067	.045	.860
	보호자 불안	.021	.061	1.790	.038	.108	2.628**
	양육스트레스	.054	.131	3.417**	.044	.110	2.301*
	돌봄 공백	-.047	-.025	-.750	-.046	-.029	-.727
	온라인 교육 환경	.050	.032	.977	-.143	-.081	-2.017*
		R ² =.264, adj.R ² =.250, F=18.834***, Durbin-Watson=2.000			R ² =.261, adj.R ² =.235, F=.261***, Durbin-Watson=1.951		

***p<.001, **p<.01, *p<.05

2) 행복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동 '행복'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아동 연령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의 경우 아동요인으로는 식습관, 수면시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이, 부모·가족요인으로는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온라인 교육 환경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식습관($\beta=0.078, p<.05$)과 수면시간($\beta=0.064, p<.05$)이 안정적이고 온라인 교육 환경($\beta=0.070, p<.05$)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행복 정도는 증가하였다. 반대로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의 증가($\beta=-0.091, p<.01$)와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심화($\beta=-0.079, p<.05$)는 아동의 행복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 요인 중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이, 부모·가족요인 중 보호자 불안이 아동의 행복과 관련이 있었다. 아동의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이 늘어나고($\beta=-0.089, p<.05$) 보호자의 불안($\beta=-0.103, p<.05$)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행복은 감소하였다.

표 26. 아동 연령에 따른 행복 관련 요인

구분	초등 저학년 이하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2.498		3.548***	5.773		4.581***	
통제	보호자 성별	.102	.029	.899	.019	.005	.126
	보호자 연령	.028	.076	2.279*	-.003	-.007	-.138
	아동 성별	-.008	-.002	-.078	.055	.016	.403
	아동 연령	-.028	-.029	-.829	-.113	-.145	-2.873**
	거주지역	.089	.026	.834	.215	.061	1.546
	소득수준	-.018	-.011	-.332	.075	.046	1.096
	2020 아동 행복	.389	.377	11.310***	.211	.216	4.785***
아동 요인	식습관	.311	.078	2.260*	.160	.044	.990
	수면시간	.001	.064	2.009*	-.001	-.026	-.613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2	-.091	-2.767**	-.001	-.089	-2.119*
	가정폭력 경험	/			-.063	-.074	-1.767
	사이버폭력 경험				-.115	-.055	-1.310
	일상생활 어려움				-.048	-.049	-1.085
	안전인식				.124	.046	1.001

구분		초등 저학년 이하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B	β	t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292	-.079	-2.032*	.171	.049	.918
	보호자 불안	-.035	-.044	-1.285	-.083	-.103	-2.485*
	양육스트레스	-.029	-.030	-.800	-.030	-.032	-.651
	돌봄 공백	.073	.017	.513	.045	.012	.292
	온라인 교육 환경	.250	.070	2.142*	.258	.063	1.514
		R ² =.263, adj.R ² =.249, F=18.744***, Durbin-Watson=2.019			R ² =.205, adj.R ² =.177, F=205***, Durbin-Watson=1.973		

***p<.001, **p<.01, *p<.05

3) 불안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에서는 보호자의 불안만 관련이 있었고, 초등 고학년 이상에서는 보호자의 불안과 함께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관련 있었다. 초등 저학년 이하($\beta=0.122$, $p<.001$), 초등 고학년 이상($\beta=0.165$, $p<.001$) 모든 아동에게서 보호자의 불안이 증가할 때 아동의 불안도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초등 고학년 이상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 증가도 아동의 심리적 불안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beta=0.127$, $p<.05$).

표 27. 아동 연령에 따른 불안 관련 요인

구분	초등 저학년 이하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2.486		3.047**	-.197		-.136		
통제	보호자 성별	.124	.029	.899	.109	.027	.620	
	보호자 연령	-.035	-.077	-2.346*	.007	.014	.291	
	아동 성별	-.033	-.008	-.262	-.181	-.044	-1.125	
	아동 연령	.140	.119	3.475**	.188	.207	4.089***	
	거주지역	.127	.030	.982	-.243	-.059	-1.494	
	소득수준	-.008	-.004	-.114	.090	.047	1.123	
	2020 아동 불안	.359	.355	10.423***	.161	.186	3.824***	
아동 요인	식습관	-.288	-.059	-1.735	-.113	-.026	-.599	
	수면시간	.000	-.014	-.459	.000	.007	.159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2	.063	1.933	.000	-.027	-.637	
	가정폭력 경험	/			-.083	-.085	-2.004	
	사이버폭력 경험				.070	.029	.693	
	일상생활 어려움				.145	.127	2.527*	
	안전인식				.127	.041	.918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298	.066	1.719	.290	.072	1.331	
	보호자 불안	.119	.122	3.502***	.155	.165	3.860***	
	양육스트레스	.058	.051	1.339	.010	.010	.193	
	돌봄 공백	.053	.010	.306	-.116	-.027	-.647	
	온라인 교육 환경	-.121	-.028	-.859	-.100	-.021	-.503	
			R ² =.275, adj.R ² =.261, F=19.919***, Durbin-Watson=1.949			R ² =.201, adj.R ² =.173, F=7.195***, Durbin-Watson=1.925		

***p<.001, **p<.01, *p<.05

4) 코로나 블루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변화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뜻한다.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블루 수준 조사에서도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아동요인으로는 일상생활 어려움이, 부모·가족요인으로는 보호자의 불안과 양육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증가하고($\beta=0.207$, $p<.001$) 보호자의 불안($\beta=0.130$, $p<.01$) 및 양육스트레스($\beta=0.124$, $p<.05$)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코로나 블루’가 심화되었다.

표 28.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10~17세)의 코로나 블루 관련 요인

구분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상수(Constant)		-.248		-.160
통제	보호자 성별	.213	.049	1.130
	보호자 연령	-.013	-.024	-.502
	아동 성별	-.141	-.033	-.817
	아동 연령	.174	.181	3.522***
	거주지역	.060	.014	.343
	소득수준	.122	.061	1.422
아동 요인	식습관	-.277	-.061	-1.365
	수면시간	.001	.020	.475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0	.017	.395
	가정폭력 경험	-.009	-.009	-.199
	사이버폭력 경험	.064	.025	.589
	일상생활 어려움	.248	.207	4.491***
	안전인식	.149	.045	1.009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209	.049	.893
	보호자 불안	.129	.130	3.080**
	양육스트레스	.142	.124	2.452*
	돌봄 공백	.170	.038	.885
	온라인 교육 환경	-.012	-.002	-.058
		$R^2=.170, \text{adj.}R^2=.142, F=6.177***,$ Durbin-Watson=1.866		

*** $p<.001$, ** $p<.01$, * $p<.05$

· ‘코로나 블루’는 2021에만 조사된 문항으로 2020 측정값 없으며 통제변수 미포함

4. 코로나19와 아동의 사회발달

1) 행동발달의 변화

행동발달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과한 의심과 경계심, 대인관계회피 등 부정적인 행동반응이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는지 여부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초등 저학년 이하 아동의 경우, 아동요인 중 식습관,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이, 부모·가족요인 중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및 불안이 아동의 행동발달의 변화와 관련 되었다. 재난 이후 긍정적인 식습관은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발달을 낮췄으나($\beta=-0.082, p<.05$)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의 증가는 아동의 부정적 행동발달을 증가시켰다($\beta=0.069, p<.05$).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beta=0.136, p<.01$) 및 불안($\beta=0.087, p<.05$)의 심화 또한 아동의 부정적 행동발달을 강화하였다.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만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으며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 증가는($\beta=0.206, p<.001$) 아동의 부정적 행동발달을 강화하였다.

표 29. 아동 연령에 따른 행동발달의 변화 관련 요인

구분	초등 저학년 이하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323		1.025	.510		.927	
통제	보호자 성별	.029	.019	.545	.012	.008	.178
	보호자 연령	.000	.001	.018	-.001	-.004	-.084
	아동 성별	.011	.007	.217	.062	.040	1.009
	아동 연령	-.004	-.009	-.236	.000	-.001	-.016
	거주지역	.025	.017	.504	-.111	-.071	-1.786
	소득수준	-.015	-.020	-.594	-.032	-.044	-1.065
	2020 행동발달	.231	.230	6.702***	.155	.155	3.547***
아동 요인	식습관	-.147	-.082	-2.283*	.024	.015	.334
	수면시간	.000	-.055	-1.644	.000	.046	1.115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1	.069	2.002*	.000	-.004	-.091
	가정폭력 경험	/			.026	.068	1.620
	사이버폭력 경험				.057	.061	1.480
	일상생활 어려움				.089	.206	4.489***
	안전인식				-.077	-.065	-1.468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225	.136	3.332**	.006	.004	.074
	보호자 불안	.031	.087	2.437*	.019	.053	1.269
	양육스트레스	.029	.070	1.757	.027	.065	1.313
	돌봄 공백	.083	.043	1.246	-.007	-.004	-.102
	온라인 교육 환경	.069	.043	1.272	-.142	-.078	-1.871
				R ² =.194, adj.R ² =.179, F=12.671***, Durbin-Watson=1.959			
				R ² =.205, adj.R ² =.177, F=0.205***, Durbin-Watson=1.924			

***p<.001, **p<.01, *p<.05

2)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의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를 측정하였고 예측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요인에서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및 가정폭력 경험이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beta=-0.098$, $p<.05$)과 가정 내 폭력 경험($\beta=-0.129$, $p<.01$)이 증가할수록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표 30.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10~17세)의 부모님과의 관계 관련 요인

구분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상수(Constant)		5.574		4.262***
통제	보호자 성별	.057	.015	.363
	보호자 연령	-.033	-.069	-1.505
	아동 성별	.131	.035	.912
	아동 연령	-.022	-.026	-.530
	거주지역	.180	.048	1.241
	소득수준	.162	.093	2.282*
	2020 부모님과의 관계	.311	.314	6.937***
아동 요인	식습관	.084	.022	.499
	수면시간	.000	-.016	-.385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2	-.098	-2.365*
	가정폭력 경험	-.116	-.129	-3.104**
	사이버폭력 경험	-.068	-.030	-.757
	일상생활 어려움	-.038	-.037	-.797
	안전인식	.054	.019	.435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109	.030	.562
	보호자 불안	-.015	-.017	-.423
	양육스트레스	.035	.035	.722
	돌봄 공백	-.125	-.032	-.785
	온라인 교육 환경	.331	.076	1.851
		R ² =.238, adj.R ² =.211, F=8.917***, Durbin-Watson=2.010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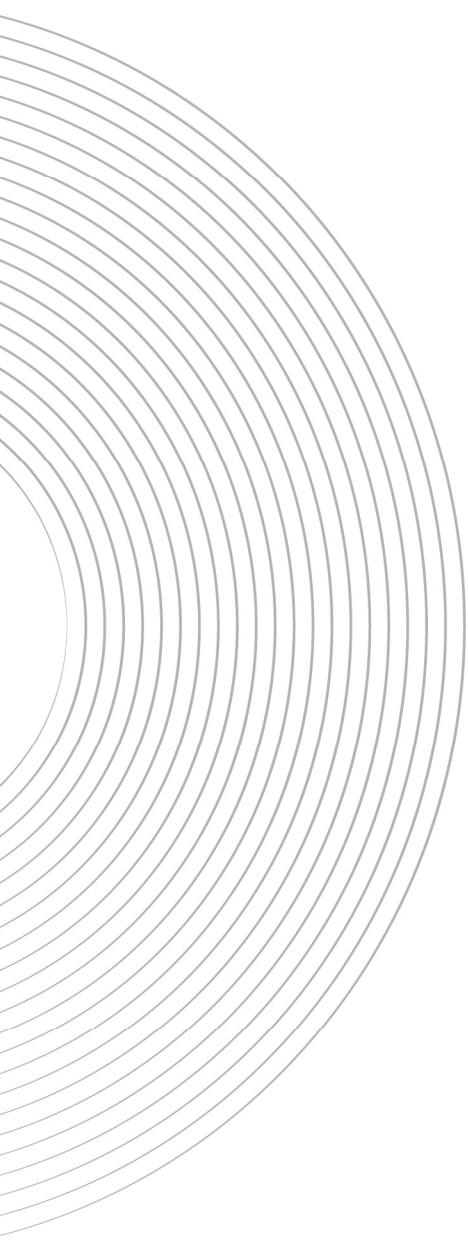
3)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를 측정하였고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요인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부모·가족요인에서는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아동의 친구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생활 어려움이 증가하면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는 줄어들었고($\beta=-0.141$, $p<.01$)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이 증가하면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가 증가하였다($\beta=0.125$, $p<.05$).

표 31.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만10~17세)의 친구와의 관계 관련 요인

구분		초등 고학년 이상		
		B	β	t
상수(Constant)		4.124		2.904**
통제	보호자 성별	-.012	-.003	-.068
	보호자 연령	.001	.001	.026
	아동 성별	.135	.035	.859
	아동 연령	.035	.041	.775
	거주지역	.132	.034	.825
	소득수준	.092	.051	1.176
	2020 친구와의 관계	.185	.193	4.216***
아동 요인	식습관	.039	.010	.208
	수면시간	.000	.007	.165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001	-.054	-1.217
	가정폭력 경험	-.046	-.049	-1.125
	사이버폭력 경험	-.014	-.006	-.141
	일상생활 어려움	-.151	-.141	-2.914**
	안전인식	.148	.050	1.088
부모 가족 요인	가정에서의 어려움	.477	.125	2.233*
	보호자 불안	-.058	-.065	-1.518
	양육스트레스	-.005	-.005	-.091
	돌봄 공백	-.199	-.049	-1.137
	온라인 교육 환경	.345	.077	1.748
		R ² =.135, adj.R ² =.105, F=4.460***, Durbin-Watson=1.991		

***p<.001, **p<.01, *p<.05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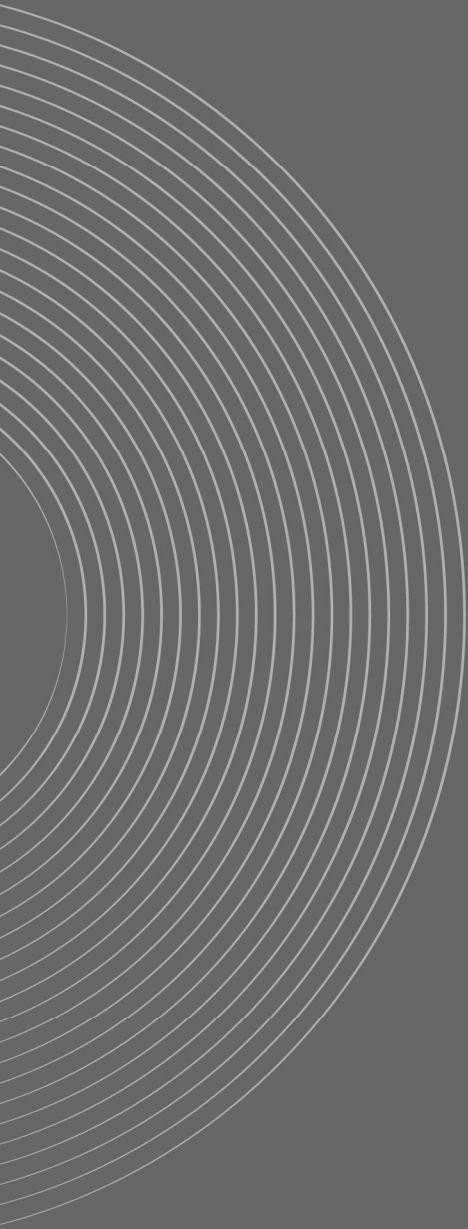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V. 결론 및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아동발달 추이와 관련 요인 탐색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변화가 아동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사회적 감염 상황의 엄중함과 감염병 억제되는 상황에서 아동 발달을 고려한 개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의 아동 발달추이를 확인하고 주요한 환경의 변화와 아동발달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재난 발생 시 발달에 취약한 위기그룹을 탐색하고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재난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0년과 2021년에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1,367명을 선별하여 신체·인지·심리·사회 발달 추이를 살펴보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1. 아동발달 추이

아동발달 추이는 2020년 대비 2021년의 아동발달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아동 전체(1,367명)를 대상으로 먼저 분석하였고, 다음으로는 연령을 초등 저학년 이하(805명)와 초등 고학년 이상(562명)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¹⁰⁾ 아동발달은 신체발달, 인지발달, 심리발달, 사회발달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신체발달 영역으로 '신체발달의 변화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발달 영역으로 '인지발달의 변화', 심리발달 영역으로는 '감정발달의 변화와 행복·불안', 사회발달 영역은 '행동발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공부의 어려움'(인지발달 영역), '부모님과과의 관계 만족도,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사회발달 영역)는

10) 아동발달 세부지표 중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한 코로나 블루와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다중회귀분석에는 포함하였으나, 2020년 측정값이 없어 아동발달 추이 분석(대응표본 t-검정)에서는 제외함

초등고학년 이상(만 10~17세) 아동만 응답한 지표로 추가 분석하였다.

1) 신체발달

신체발달 영역에서는 2020년 대비 2021년의 신체발달의 변화 및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정도를 확인하였다. 아동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신체발달의 변화가 심화되었고 주관적 건강상태의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였으며, 아동을 초등 저학년생 이하 아동(이하 만4~9세 아동)과 초등 고학년생 이상 아동(이하 만10~17세 아동)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도 모두 동일하였다. 신체발달의 변화란 불면,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코로나19 이후 자녀에게 나타났는지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아동의 부정적 신체발달이 심화되고 주관적 건강상태의 부정적 평가가 증가했다는 점을 볼 때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아동의 신체발달이 저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인지발달

인지발달은 인지발달의 변화 및 공부의 어려움으로 살펴보았다. 인지발달의 변화는 신체발달의 변화와 동일하게 2020년 대비 2021년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인지하기에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집중력과 판단력 저하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 연령을 만4~9세 아동과 만 10~17세 아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도 유사하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인 만 10~17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 공부의 어려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공부의 어려움은 2020년 대비 2021년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이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염병 발생 초기, 아동들은 가정에서 수업을 참여하면서 온라인 교육 환경 부족 및 수업 진행상황 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이봉주 외, 2020). 이러한 어려움은 코로나 발생 2년차에도 유지되었으나, 온라인수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업 만족도가 높은 대면수업(이봉주 외, 2021)이 2020년 하반기부터 병행되면서 아동의 공부 어려움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3) 심리발달

심리발달 영역에서는 ‘감정발달의 변화, 행복, 불안’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감정발달의 변화를 아동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모두 2020년 대비 2021년은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 구분한 분석결과도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정발달의 변화란 보호자가 인지한 자녀의 무기력,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아동의 부정적인 심리정서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행복과 불안을 구분하여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행복과 불안 모두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만 4~9세 아동은 불안이 감소하고 행복은 증가하였으나, 만 19~17세 아동은 불안이 증가하고 행복은 감소하였다.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은 재난 상황에서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기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은 재난 상황이 지속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정서적 어려움이 보다 심화되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이봉주 외(2021)에서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주 이상 슬픔을 느끼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자살생각이 2020년 4.5%에서 2021년 5.2%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발생 시 아동 전체, 특히 청소년기 아동의 심리 및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사회발달

사회발달은 행동발달의 변화, 부모관계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행동발달의 변화란 재난 상황에서 과한 의심과 경계심, 대인관계회피와 같은 증상이 자녀에게 나타났는지 여부를 보호자에게 물어본 것으로, 아동전체 혹은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 2020년 대비 2021년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0.5%p 내에서 증가·감소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초등 고학년생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모·친구와의 관계 만족도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각각 0.24%p 및 0.78%p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청소년이 인지하기에 대인관계는 점차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대인관계 만족도 증가가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 및 집중력판단력 저하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체발달, 인지발달, 심리발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아동발달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무력감, 우울, 불면, 식욕저하, 집중력·판단력 저하와 같은 재난반응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의 행복이 감소하고 불안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우울, 코로나 블루, 자살과 같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코로나19 아동발달 관련 요인

코로나19 재난이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그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며, 새로운 바이러스 도래와 그로 인한 위험환경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은 발달적으로 성인과 다른 양상의 충격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오혜영, 안현의, 김은영, 2012)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취약대상 지원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시 실천·정책적 방향이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기에 아동발달을 고려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변화와 아동 발달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앞서 2020년, 2021년 발달추이를 살펴본 척도 외에도, 2021년에 초등 고학년 이상(만 10~17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온라인수업 만족도, 코로나블루’도 아동발달 지표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1) 코로나19 재난반응 관련 요인

재난반응이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의식중에 발현되는 트라우마의 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불면,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신체발달의 변화’,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를 포함하는 ‘인지발달의 변화’, 불안, 우울, 무기력과 같은 ‘감정발달의 변화’, 과한의심과 경계심, 대인관계 회피 등의 ‘행동발달의 변화’이다.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4가지 재난이후 발달의 변화와 공통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영향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식습관,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 보호자의 불안, 양육스트레스였다. 즉, 아동에게 식습관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부정적인 재난반응은 감소하나,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이 증가하고 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심화된 상황은 아동의 재난반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적 재난반응을 낮추기 위해서는 규칙적

이고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섭취, 고기반찬 및 우유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가 아동에게 제공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보호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 예를 들면 자녀 돌봄 공백의 문제, 가정 내 경제적 상황 악화, 재택근무 중 양육 및 회사 업무의 병행, 부부 간 의견대립 심화, 외부활동 제한과 같은 문제 상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불안 및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감소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긍정적 발달과 관련된 요인

아동발달 지표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은 코로나19 이후 아동발달이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영향요인 분석결과, 아동의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과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이 긍정적 발달 지표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시간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행복은 감소했으며,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고 행복도 증가하였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미디어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그 영향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활동 제약과 자택 내 여가활동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게임 시간 증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도입 등 아동의 미디어 활용 행태와 환경적 요인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변화하면서, 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방역 또는 그 일환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아동의 모바일 게임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가정 내 온라인 학습 환경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 경제 상황 등을 살펴,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 내 학습 환경, 학습과정, 미디어 활용 행태에 대한 섬세한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발달의 주 영향요인 : 보호자 불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화된 보호자의 불안은 아동발달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아동의 불안을 높이고 불면, 식욕저하, 집중력저하, 대인관계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신체·인지·감정·행동 발달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행복을 낮추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불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 변화와 관련된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전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 온라인 공교육 도입과 자녀 돌봄 공백, 양육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다양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보호자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주고 부정적 감정인 불안 정도를 높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 결과, 보호자의 불안은 아동발달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나, 재난 상황에서 심화되는 불안을 개인의 역량에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적 상황, 부부 간 의견 대립 및 갈등, 자녀와의 관계 및 돌봄 공백, 재택근무 확대에 의한 양육 및 회사 업무 병행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되고 있는 보호자의 생활 상 어려움(이봉주 외, 2021)이 감소하여 심리적 어려움이 낮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4) 아동 연령에 따른 아동발달 영향요인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발달 관련 요인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만4~9세인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1~3학년생 아동은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이 아동발달의 주요인이었다. 즉, 가정 내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자녀 혹은 부부 간 의견대립, 재택근무 중 양육 및 회사 업무의 병행 등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인해 보호자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만 4~9세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아동의 무기력, 집중력 저하와 같은 변화를 심화시키고 주관적 건강상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행복은 감소하게 하였다. 한편, 10~17세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기 아동에게는 보호자의 어려움보다는 아동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어려움 정도가 발달의 주 영향요인이 되었다. 재난 기간 동안 친구, 가족, 외모, 코로나 등의 문제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¹¹⁾이 클수록 친구관계 만족도는 감소했고, 불안과 코로나 블루는 심화되었으며 아동의 무기력,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재난반응은 증가하였다. 또한 만10~17세 아동의 경우,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 필요한 학습기기 구비 정도와 적절한 장소 마련, 학습·돌봄 선생님 지원을 통한 공적·사적 자원 활용 가능성 등 가정 내에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환경은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지발달 변화(집중력·판단력 저하)와 감정발달 변화(우울·무력감)를 완화하였고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재난 발생 시 아동과 보호자, 가정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나, 특히 아동의 연령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에 따라 초점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본 연구에서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친구, 가족, 외모, 코로나 등 어려움)'은 만 10~17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문항으로, 만4~9세 아동이 경험하는 '아동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발달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2

제언

갑작스러운 재난에 직면하면 심리, 대인관계 등에서 다양한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코로나 19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자 장기적이고 전국적인 재난상황으로, 방역 및 교육 정책이 유동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동과 보호자는 감염 위험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되거나 대면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자녀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등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아동은 생애주기상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지속된 가정환경 및 일상생활의 변화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난 발생 시 발달에 취약한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 고민해보고자 한다.

1. 재난 발생 시 부정적 아동발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재난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면 신체·인지·감정·행동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반응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죄책감, 수치심, 만성피로, 식욕변화, 기억력 감소, 사고의 속도와 이해저하, 사건을 연상시키는 상황 회피, 대인관계 위축 등 그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다(국가트라우마센터포털, 2022.6.29. 추출). 아동은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우선 개입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발달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재난 발생 시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 변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완화하는 요인은 규칙적이고 영양 잡힌 식습관이 이루어지는 환경 그리고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 및 불안·양육스트레스가 낮은 환경이었다.

불규칙한 식사시간, 편식 및 가공식품 섭취가 높은 환경은 아동의 건강과 성장, 성격형성, 인지발달 등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성인 이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이현옥, 2006).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크게 겪었는데 특히 수면, 교육, 게임시간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교적 규칙적으로 유지되던 일상생활 루틴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이봉주 외, 2020; 이봉주 외, 2021). 이는 감염병 예방 정책 도입으로 인한 환경변화 및 재난 상황 지속으로 인한 가구 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며, 2020년 대비 2021년의 아동 식습관은 인스턴트와 편의점 음식 섭취가 증가하고 규칙적인 식사는 줄어드는 등 식생활 영양이 위협받고 있었다(이봉주 외, 2021). 재난 상황일수록 아동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는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긍정적 발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아동의 식습관은 가정 및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부모가 자녀의 영양섭취에 관심이 높고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아동에게 좋은 식습관이 형성되고 섭취하는 식사의 영양소 및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다(신은경, 이연경, 2005; 이현옥, 2006).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일상생활의 루틴이 유지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생활 습관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는 것이 아동발달의 보호요인이 된다는 것을 부모에게 안내하고, 균형 있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습관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내 긴급한 문제 발생 시에도 식습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 외에도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 불안,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 증가가 아동의 부정적 발달 변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가정 내 안정적인 일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호자 대상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녀 돌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상의 양육비용 보조, 부부 간 혹은 부모와 자녀 간 갈등 완화, 긴급 돌봄 인력 확충을 통한 자녀 돌봄 공백 지원 등을 통해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을 완화하고 양육 스트레스 및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의 미디어 환경과 활용에 대한 기준마련 및 지원 필요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면서 미디어 활용도 크게 확장되었다. 게임시간의 증가는 아동의 행복을 낮추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였으며, 가정 내 온라인 수업 환경은 행복을 높이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은 상호 간 긍정 혹은 부정적 방향의 일방향으로 발달하는데(유인영, 이정애, 2013) 이 두 가지 긍정발달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과 같은 또 다른 긍정발달과도 연결된다(조경서, 남기원, 2011; 강영하, 2012; 박민지, 김민진, 2016; 서경현, 2016). 따라서 미디어 활용과 환경에 대한 기준마련 및 지원은 재난 상황 중에서도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긍정발달을 이룰 수 있는 보호체계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량을 늘리는데, 외부활동이 제약되는 재난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미디어 사용량이 증가하며 이는 과의존 혹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새로운 매체를 접했을 때 수용성과 몰입이 높아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김동일 외, 2012) 미취학·초등 아동의 경우, 부모의

원활한 활동 및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진정하기 위한 대체물로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게임 과몰입 및 중독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공유하고, 스마트폰 게임 이외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면서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이 아동의 긍정발달 관련 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온라인 교육 환경이란, 가정 내에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받을 장소 및 공간 유무, 수업에 필요한 학습기기 전용 수준, 자녀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학습을 위한 공적·사적 자원 활용가능성, 온라인 수업 시 질문 해소의 수월함 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아동은 가정 내 온라인 수업 준비 정도가 충분하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만족도가 낮았으며 대면·비대면 수업 변동에 따른 불편함이나 학습부진 심화정도가 높았다(이봉주 외, 2021). 따라서 재난 발생 시 가정상황에 따른 교육격차가 증가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아동의 수업 환경에 대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강화

보호자의 불안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살펴본 신체·인지·감정·행동발달의 변화¹²⁾와 함께 아동의 불안을 높이고 행복을 낮추며 공부 문제의 어려움을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봉주 외(2021)에 의하면, 보호자가 갖는 어려움은 감염의 위험 및 방역정책으로 인한 외부활동에서 파생되는 자녀 돌봄 및 교육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이로 인한 보호자의 걱정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 증가는 아동의 불안과 같은 발달문제와 전이될 수 있으므로(홍민지, 이소연, 2018)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호자의 정서 상태는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공존에 대한 논의 시, 보호자의 심신 안정과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위해 양육부담 및 가정 내외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와 프로그램 보급 조치가 필요하다(이봉주 외, 2021).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문제 발생 시, 보건소 및 주민센터와 같은 개방적

12) 신체발달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부모가 인지한 아동의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신체반응
 인지발달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부모가 인지한 판단력과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반응
 감정발달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부모가 인지한 우울, 무력감, 불안 등의 감정반응
 행동발달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부모가 인지한 과한 의심, 경계심, 대인관계 회피 등의 행동반응

이고 접근성이 확보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이봉주 외, 2021).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이 넓게 확산되는 만큼 전화나 SNS 등을 이용한 다양한 상담 채널을 확보하고, 낙인감과 기록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널을 개발 및 확대함으로써 상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고 있는 대상은 ‘부모님이나 가족(29.7%),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27.3%), 뉴스나 신문 등 언론 매체(27.3%)였다(이봉주 외, 2021). 아동은 부모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불안과 걱정 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각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전달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경우 학교를 통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가이드 제작 등의 정보가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난 발생 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이 학교를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아동 연령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과 보호자 모두는 가정 내외의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 재난 상황에서는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만 4~9세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3학년생 아동은 부모가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동발달의 주 영향요인이었다. 부모의 가정 내 어려움이란 돌봄 공백, 자녀 끼니 챙기기, 장시간 돌봄, 자녀의 인터넷·게임 시간 통제, 자녀와의 의견 대립 등 가정 내에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부부 간의 견대립에 의한 갈등, 재택근무 중 양육 및 회사업무의 병행,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과 같은 일상생활 변화에 따른 혼선과 적응의 어려움이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서 미취학, 초등 저학년생 아동의 부정적 발달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우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만큼 양육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마련, 양육비 지급 및 비대면 자조모임 활성화 등 코로나19 이후 보호자가 호소하는 가정 내 어려움을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기인 만 10~17세의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보다는 아동 자신이 지각하는 어려움 정도가 아동발달의 주 영향요인이었다. 친

구와 가족 등 대인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심리적 어려움 및 외모와 경제적 문제,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지각할수록 신체·인지·감정·행동발달의 변화가 심화되고 불안은 증가하며 코로나블루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걱정·불안이 증가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학교 교사 혹은 지역 내 상담센터를 통한 심리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이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아동의 생활 속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인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재난 상황에서도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아동 놀이 및 휴식 경향을 분석하고, 놀이시간 외에도 누구와 어떻게 놀이를 하는 것이 아동발달에 긍정적인지를 탐색하는 등 비대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 10~17세의 아동은 가정 내 온라인 수업 환경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행복과 주관적 건강상태 외에도, 만 10~17세 아동의 경우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코로나19 이후, 감정 및 인지발달의 부정적인 측면이 낮아지고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증가하는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은 코로나19 이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의 교육현장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상을 확장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공백이 있는 고위험 가정에서 가정 내 교육환경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이봉주 외, 2020; 이봉주 외, 2021)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은 성장·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발달상의 어려움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심리정서,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 또 다른 발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재난 발생 시 아동과 보호자의 일상생활 변화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교육 환경을 확충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여 취약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다 섬세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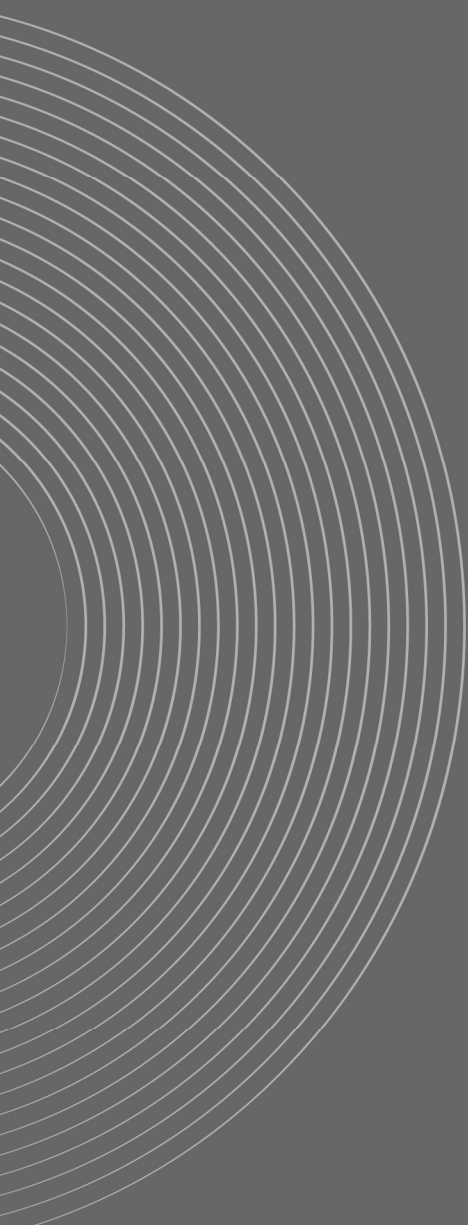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참고 문헌

- 강영하(2012).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행복 간의 관계. 학습전략중재연구. 3, 107-123.
- 계보경·김혜숙·이용상·김상운·손정은·백송이(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경험 및 인식분석: 기초통계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가트라우마센터포털. https://nct.go.kr/distMental/understand/understand02_1_1.do
- 김경희·김완수·최인봉·김미경·김광규·박준홍·김선희·박종효·도승이·장현진(2020). 서울교육중단 연구 2020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동일·이윤희·이주영·김명찬·금창민·남지은·강은비·정여주(2012). 미디어 이용 대체·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71-88.
- 김선숙·김진숙(2020). Covid 19 상황에서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기대: 아동복지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2, 203-229.
- 김웅수·김재희(2022). 코로나19 두려움과 아동의 생활역량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20(5), 827-832.
- 김은정·김춘화·이상수(2015).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과 공동체의식 개선에 주는 의미 탐색. 교육방법연구. 27(4), 511-534.
- 김지우·김나영·남재현(2021). 코로나19와 불평등: 코로나19가 아동의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70(2), 167-195.
- 김효진·도승이·송미령·장영인(2021). 코로나19 확진 아동의 격리 경험. 아동과 권리. 25(3), 421-445.
- 박민지·김민진(2016). 또래 유능성, 자아존중감, 교사-유아관계와 유아 행복간의 구조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1), 217-24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10.2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
- 서경현(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및 행복감 간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1), 137-157.
- 서울신문(2021.04.14.). 안전취약계층 위한 재난안전정책을.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https://news.v.daum.net/v/20210414050829138>.

- 송효진(2015). 젠더 관점에서 본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7(2), 147-170.
- 신은경·이연경(2005). 보육시설 유아들의 식행동과 식품기호도 조사를 통한 식단개발 및 평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1), 1-14.
- 오금호·박소순·유병태·정소영·권효순·구도훈·현보람(2013). 안전약자 유형별 생활안전 콘텐츠 발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오혜영·안현의·김은영(2012). 재난피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개입모델에 관한 개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335-359.
- 유인영·이정애(2013). 다문화 가족 환경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정도.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0(5), 699-707.
- 윤명희·김진화(2008).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173-197.
- 윤지원·오금호·유병태(2014). 아동보호 개념으로의 아동안전 정책방향 연구: 재난관리 관점에서. 한국위기관리논집. 10(11), 1-19.
- 이봉주·김선숙·김남희(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봉주·이화조·선우진희·장희선(2021).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Ⅱ, 굿네이버스.
- 이봉주·장희선·선우진희·길보라(2020).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Ⅰ, 굿네이버스.
- 이세원(2021). 빅카인즈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아동 삶 분석. 인문사회21, 12(1). 2941-2954.
- 이하나·임세희·민기채·신영규·아쓰시·임밖네·김도윤(2021). 재난 대응 아동보호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759-799.
- 이현옥(2006). 미취학 아동의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1): 식습관 및 식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9(4), 343-351.
- 임혜림·김서현(2017). 민주적 부모양육태도가 또래애착을 매개로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6(3), 171-185.
- 정은화·이강이(202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 유형: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 1학년 온라인 학습상황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8(3), 317-337.
- 정익중·박현선·최은영·이수진·정수정·최선영·김기태(2016). 아동권리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아동균형 생활시간 권장기준 활용 및 분석. 서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정익중·이수진·강희주(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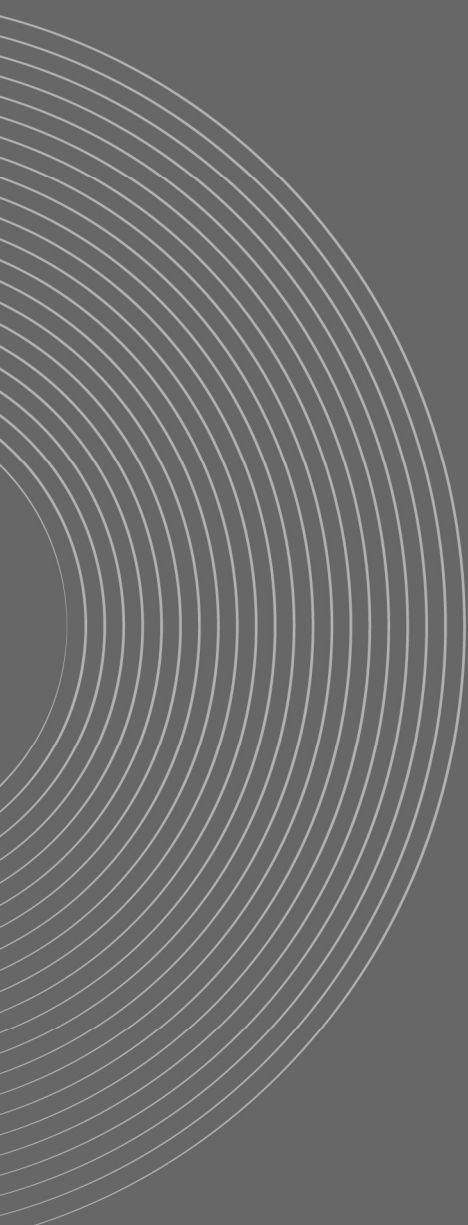
- 정익중·이수진·정수정·유다영(2022).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일상균형과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행복감 비교. 보건사회연구. 42(1), 299-315.
- 정현정·이영옥(2022). 코로나19를 겪는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12(1), 71-96.
- 조경서·남기원(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61-178.
- 조영실·김형모(2022). 아동 긴급돌봄서비스 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한국가족복지학. 69(1), 173-203.
- 질병관리청 포털[웹사이트](2022.6.17.). <http://ncov.mohw.go.kr/>
- 최경숙(2010). 『발달심리학: 전 생애 : 아동, 청소년기, 성인』. 서울: 교문사.
- 최수한·김한울·강지만·김동현·조은영(2020). 소아청소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과 임상양상.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PIV). 27(1), 11-23.
- 최윤경(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EC) 전략. 보건복지포럼, 50-63.
- 최지옥(2021). 코로나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신경정신의학. 60(1), 2-10.
- 최혜정·김형관(2021).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와 학업발달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10(1), 83-10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코로나19 시기 경험에 따른 초·중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특성. 이슈페이퍼 Vol. 16. file:///C:/Users/GN/Downloads/ORM202104016%20(1).pdf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5.24). 코로나19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1 Vol.02. https://www.kyci.or.kr/fileup/issuepaper/IssuePaper_202105.pdf.
- 홍관표(2021).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 인권법평론. 27, 239-309.
- Greenberg, M. T., Weissberg, R. P., O'Brien, M. U., Zins, J. E., Fredericks, L., Resnik, H., & Elias, M. J. (2003). Enhancing school-based prevention and youth development through coordinated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learn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58(6), 466.
- Jiao, W. Y., Wang, L. N., Liu, J., Fang, S. F., Jiao, F. Y., Pettoello-Mantovani, M., & Somekh, E. (2020).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The Journal of Pediatrics. 221, 264-266.
- Kousky, C. (2016).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26(1), 7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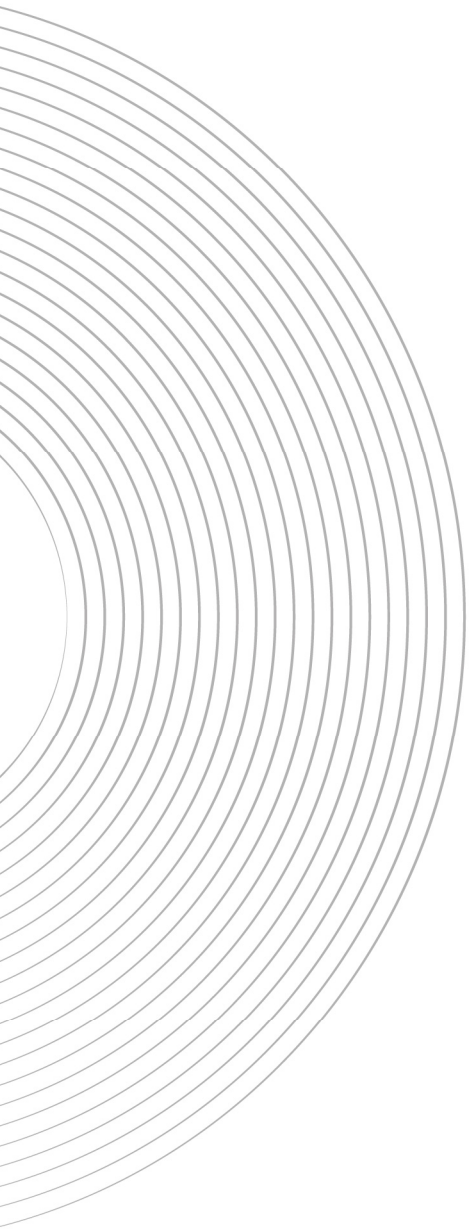
- Newcombe, N. (1996). *Child development: change over time*(8th ed.). NY: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 Rundle, A. G., Park, Y., Herbstman, J. B., Kinsey, E. W., & Wang, Y. C. (2020). COVID-19 related school closings and risk of weight gain among children. *Obesity* (Silver Spring, Md.), 28(6), 1008–1009.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440663/>
- Seon, J. Y., Jeon, W. H., Bae, S. C., Eun, B., Choung, J. T., & Oh, I. H. (2021). Characteristics in Pediatric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in Korea.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6(20), e148. doi.:10.3346/jkms.2021.36.e148.
- Shaffer, D. R. 2002.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6th ed.). Australia,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 Sankar, J., Dhochak, N., Kabra, S. K., & Lodha, R. (2020). COVID-19 in children: clinical approach and management. *The Indian Journal of Pediatrics*, 87(6), 433–442.
- Zins, J., Weissberg, R., Wang, M., & Walberg, H. J. (2004). *Building academic success on socialemotional learning: What does the research sa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부록

4. 다음 문장을 읽고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2) 집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3)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4) 우리나라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5.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이 여러분을 혼낼 때,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했는지 해당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전혀 없었음	몇 번 있었음	자주 있었음
1) 나를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1	2	3
2)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셨다	1	2	3
3)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나의 엉덩이나 신체의 일부를 때리셨다	1	2	3
4)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말로 위협하셨다	1	2	3
5)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셨다	1	2	3
6)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바보', '멍청이' 라고 말하거나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셨다	1	2	3
7)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8) 식사를 제대로 챙겨 주지 않으셨다	1	2	3
9) 술에 취해 있으시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시느라 나를 잘 돌보지 않으셨다	1	2	3

6. 여러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상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오
1) 채팅/게시판/게임/ SNS 활동 등 온라인 상에서 욕설/폭언/악플을 받아봤다	1	2
2) 채팅/게시판/게임/ SNS 활동 등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 있다.	1	2
3) 컴퓨터/스마트폰, 잡지 등을 통해 아동이나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	1	2

7. 여러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오
1) 부모님 혹은 성인 가족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1	2
2) 부모님끼리, 혹은 성인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경험	1	2

8.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의 수면시간/스마트폰, 인터넷 게임/놀이 및 휴식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 1) 수면 시간(낮잠 포함 총 수면 시간) : ()시간 ()분
 2)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시간(학습 위한 사용 시간 제외) : ()시간 ()분

9. 최근 2주 동안 여러분이 다음 감정들을 얼마나 느껴졌는지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느끼지 않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많이 느낌 10
1) 행복한	0	1	2	3	4	5	6	7	8	9	10
2) 슬픈	0	1	2	3	4	5	6	7	8	9	10
3) 불안한	0	1	2	3	4	5	6	7	8	9	10
4) 열정가득한	0	1	2	3	4	5	6	7	8	9	10
5) 지루한	0	1	2	3	4	5	6	7	8	9	10
6) 걱정스러운	0	1	2	3	4	5	6	7	8	9	10
7) 외로운	0	1	2	3	4	5	6	7	8	9	10
8) 공포스러운	0	1	2	3	4	5	6	7	8	9	10

10. 코로나 19발생 이후 최근 1개월 간 다음의 각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느끼지 않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많이 느낌 10
1) 공부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2) 친구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3) 가족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 외모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5) 경제적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6) 코로나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11.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러분은 다음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매우 불만족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만족 10
1) 집안 분위기	0	1	2	3	4	5	6	7	8	9	10
2) 부모님과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3) 친구들의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4) 친구들과의 연락	0	1	2	3	4	5	6	7	8	9	10

미취학~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12. 코로나 19 발생 이후 귀하의 가정에서 경험했을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상황에 대한 어려움 정도는 어떠하셨나요?

평가항목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1) 자녀의 돌봄 공백	1	2	3	4
2)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황	1	2	3	4
3) 재택 근무 중 양육과 회사 업무의 병행	1	2	3	4
4) 자녀의 놀이 욕구 해결	1	2	3	4
5)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 시청 통제	1	2	3	4
6) 자녀의 온라인 학습 및 숙제 점검	1	2	3	4
7) 자녀와의 의견 대립	1	2	3	4
8) 가족의 경제적 상황	1	2	3	4
9) 부부(성인들) 간의 의견 대립	1	2	3	4
10)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	1	2	3	4

13. 코로나19 발생 이후, 성인 보호자 없이 자녀가 혼자 있거나 자녀들끼리만 집에 있었던 날은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였습니까?

- 1)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었음
- 2) 일주일에 1~2일 정도
- 3) 일주일에 3~4일 정도
- 4) 주말을 제외한 5일 내내
- 5) 늘 성인 보호자가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상황에 따라 달랐음
- 6) 기타: _____

14.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가 등교 및 등원하지 않는 동안, 귀하께서 느낀 양육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인니까?

전혀 없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많음 10
0	1	2	3	4	5	6	7	8	9	10

15. 다음은 귀하의 심리상태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귀하께서 다음 감정을 어느 정도 느꼈는지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느끼지 않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많이 느낀 10
1) 행복한	0	1	2	3	4	5	6	7	8	9	10
2) 슬픈	0	1	2	3	4	5	6	7	8	9	10
3) 불안한	0	1	2	3	4	5	6	7	8	9	10
4) 열정 가득한	0	1	2	3	4	5	6	7	8	9	10
5) 지루한	0	1	2	3	4	5	6	7	8	9	10
6) 걱정스러운	0	1	2	3	4	5	6	7	8	9	10
7) 외로운	0	1	2	3	4	5	6	7	8	9	10
8) 공포스러운	0	1	2	3	4	5	6	7	8	9	10

16. 다음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가 등교 및 등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녀의 온라인 수업 및 활동과 관련한 상황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에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받을 장소와 공간을 집 안에 마련해 두었다.	1	2	3	4
2) 수업에 필요한 학습 기기(TV, 컴퓨터, 노트북, 스피커, 화상 카메라 등)를 준비해 두었다.	1	2	3	4
3) 자녀의 수업 시간표 및 교구, 학습(가정)통신문 등을 미리 또는 매일매일 확인하였다.	1	2	3	4
4)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적 자원을 활용했다. (예, 긴급돌봄, 학교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1	2	3	4
5)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적 자원을 활용했다. (예, 지인 부탁, 돌봄 선생님 및 학습 선생님 지원 등)	1	2	3	4
6) 온라인 수업 이용방법 및 진행 관련 문의사항 등이 생겼을 때 문의를 하거나 정보를 얻기가 편했다.	1	2	3	4



24. 코로나 19 발생 이후, 귀 닥의 월평균 소득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1) 감소함

2) 동일함

3) 증가함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응답 해주신 답변들을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 아동의 삶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2021 설문조사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2021년 4월 1일 ~ 5월 3일(33일간)
- 지역 : 전국 6개 권역 거주자

미취학~고등학교 자녀¹⁵⁾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1) 남자 2) 여자

2. 코로나 19 발생 이후 여러분의 각 영역별 생활은 최근 3개월 동안 어떻게 변화한 것 같나요?

구분	부정적으로 변함 0	1	2	3	4	변화하지 않았음 5	6	7	8	9	긍정적으로 변함 10
1) 일상생활	0	1	2	3	4	5	6	7	8	9	10
2) 건강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3) 취미 및 개인 활동	0	1	2	3	4	5	6	7	8	9	10
4) 시간활용	0	1	2	3	4	5	6	7	8	9	10

3. 최근 3개월 동안 등교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구분	매우 불만족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만족 10
1) 등교 수업	0	1	2	3	4	5	6	7	8	9	10
2) 온라인 수업	0	1	2	3	4	5	6	7	8	9	10

15)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 아동의 설문조사는 보호자가 대리 응답함

4.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의 각 감정 수준은 어떠한 수준이었던 것 같나요?

구분	매우 낮았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높았음 10
1) 행복한	0	1	2	3	4	5	6	7	8	9	10
2) 불안한	0	1	2	3	4	5	6	7	8	9	10
3) 지루한	0	1	2	3	4	5	6	7	8	9	10
4) 외로운	0	1	2	3	4	5	6	7	8	9	10

5.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코로나 블루'는 어느 정도였나요?

매우 낮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높음 10
0	1	2	3	4	5	6	7	8	9	10

*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변화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뜻합니다.

6.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은 다음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분	매우 불만족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만족 10
1) 집안 분위기	0	1	2	3	4	5	6	7	8	9	10
2) 부모님과의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3) 친구들과의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4) 친구들과의 연락	0	1	2	3	4	5	6	7	8	9	10

미취학~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

7. 코로나 19 발생 이후 현재 각 영역별 자녀분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한 것 같습니까?

구분	부정적으로 변함 0	1	2	3	4	변화하지 않았음 5	6	7	8	9	긍정적으로 변함 10
1) 일상생활	0	1	2	3	4	5	6	7	8	9	10
2) 건강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3) 취미 및 개인 활동	0	1	2	3	4	5	6	7	8	9	10
4) 시간활용	0	1	2	3	4	5	6	7	8	9	10

8. 최근 3개월 동안 자녀분의 각 감정 수준은 어떠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까?

구분	매우 낮 있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높 있음 10
1) 행복한	0	1	2	3	4	5	6	7	8	9	10
2) 불안한	0	1	2	3	4	5	6	7	8	9	10
3) 지루한	0	1	2	3	4	5	6	7	8	9	10
4) 외로운	0	1	2	3	4	5	6	7	8	9	10

9. 귀 닥의 자녀는 최근 3개월 동안 다음의 증상들을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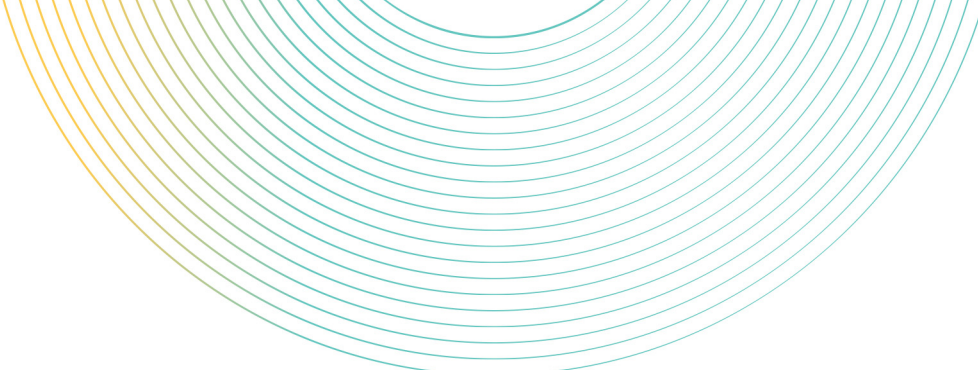
평가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감정 반응(불안, 우울, 무력감)	1	2	3	4
2) 신체 반응(불면, 식욕저하, 두통)	1	2	3	4
3) 인지 반응(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	1	2	3	4
4) 행동 반응(과한 의심과 경계심, 대인관계회피 등)	1	2	3	4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응답 해주신 답변들을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 아동의 삶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 아동발달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 행 2022년 10월
발 행 인 김 응 철
편 집 인 한 유 정
발 행 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전 화 02-6424-1696
이 메 일 crt1@gnk.or.kr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발행번호 23-사07-102
I S B N 979-11-92636-00-9



2022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비매출/무료

93060



9 791192 636009

ISBN 979-11-92636-00-9